

2023 청소년상담연구·248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정 경 은

공동 연구자: 박 지 영

조 규 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48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 개발 연구

인 쇄 : 2023년 12월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3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911-9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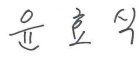
최근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 및 심리 문제 등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과 제도가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 퇴소 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가정복귀와 사회복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이들의 재가출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사후관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등 현장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매뉴얼에는 청소년의 사후관리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유형을 분류하여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 등 퇴소 전 단계부터 사후관리 개입, 사후관리 종결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퇴소 청소년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에 참여해주신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와 청소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신 학계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애정으로 연구를 수락하고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신 초당대학교 정정은 교수님과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세종사이버대학교 조규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후관리 모델과 매뉴얼이 가정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가정과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초 록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퇴소 후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지역 사회 지지체계 기반이 약하여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의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 적은 없다.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시설 퇴소 후 재가출 예방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 방법과 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모델 개발과 현장에 적용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후관리 관련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현장의 현황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8명과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사후관리 매뉴얼 활용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통해 전문가 자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의 과정은 총 4단계로 제안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2단계는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3단계는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4단계는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이다. 각 단계별로 실무자의 과업과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후관리 유형은 기본 사후관리형, 집중 사후관리형, 잠재 사후관리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은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안부 인사나 격려와 지지,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집중형은 서비스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부

특이 시설 퇴소가 이루어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집중형은 기본형보다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면서 사회 적응상태를 예의주시(銳意注視)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형은 사후관리 만료 이전에 서비스 목표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퇴소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한 대상으로, 수시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SNS나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후관리 종결 유형을 목표달성형, 기관의뢰형, 거부형, 만료형으로 구분하였다. 목표달성형은 사후관리 목표가 달성되어 서비스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관의뢰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개별 목표와 여건에 따라 타 기관에 의뢰되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종료된 경우이다. 거부형은 사후관리에 대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료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넷째, 사후관리 중 사용할 수 있는 서식 5종을 개발하였다. 서식은 퇴소 욕구조사표,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 사후관리지, 사후관리 종결보고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 주요어: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사후관리 모델, 사후관리 매뉴얼

목차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3

II. 선행연구 고찰 4

-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정책 4
-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경험 16
- 3. 유사 기관의 사후관리 17
- 4. 청소년복지시설 사례조사 21

III. 연구 방법 26

-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26
- 2. 청소년복지시설 사례조사 26
- 3.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FGI) 26
- 4. 청소년 심층인터뷰 28
- 5. 전문가 자문 29

IV. 사후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결과 30

- 1.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FGI 분석 30
- 2. 청소년 인터뷰 결과 66
- 3. 전문가 자문 83

V. 사후관리 방안 85

- 1. 사후관리 개요 85
- 2. 사후관리 유형 91
- 3. 사후관리 과정 94
- 4. 사후관리 기능 125
- 5. 사후관리 서식 130

VI. 결론 | 138

1. 연구요약	138
2. 제언	139

참고문헌 | 144

부록 | 146

1. 연구대상자 설명서	147
2. 연구대상자 동의서	151

Abstract | 152

표 목차 |

표 II-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4
표 II-2. 청소년쉼터의 종류	5
표 II-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6
표 II-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7
표 II-5. 2021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지원현황	7
표 II-6.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	9
표 II-7.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현황	9
표 II-8.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사후관리 대상자	10
표 II-9. 종결 유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자	13
표 II-10. 청소년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후관리 대상 및 내용	15
표 II-11. 사후관리 지원 예시	18
표 II-12. 사후관리 집단 구분과 내용	20
표 II-13.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사후관리 서식	22
표 II-14.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정부 지침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비교 ..	24
표 III-1. 실무자 FGI 질문	28
표 III-2. 청소년 심층인터뷰 질문	29
표 IV-1. 실무자 FGI 참여자 현황	30
표 IV-2. 가정 밖 청소년지원 기관 실무자 FGI 분석결과	32
표 IV-3. 실무자 경험에 기반한 자립지원관 및 중장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 ..	34
표 IV-4. 실무자 경험에 기반한 단기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사후관리 프로세스 ..	50
표 IV-5.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66
표 IV-6.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분석결과 요약	67
표 IV-7. 전문가 자문 의견	83
표 V-1. 사후관리 절차에 따른 각 주요 시점별 업무	87
표 V-2. 추진체계별 역할	89
표 V-3. 사후관리 유형	92
표 V-4. 사후관리 종결유형	93
표 V-5. 사후관리 과정	94
표 V-6. 사후관리 욕구 탐색	102
표 V-7. 청소년 퇴소 후 욕구 및 대처 준비를 위한 논리점검표	105
표 V-8.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지원 사업	110
표 V-9. 퇴소 이후의 청소년 개인 안전망 목록	111

표 V-10.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목록	116
표 V-11. 사후관리 종결 시점 욕구조사 목록	120
표 V-12. 사후관리 종결 이후 청소년이 자기 욕구대처 역량 점검	123
표 V-13. 사후관리의 기능	127
표 V-14. 사후관리 자원 정보	128
표 V-15. 사후관리 서식	130

그림 목차 |

그림 II-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8
그림 II-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12
그림 V-1.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관련 개입 시점	87
그림 V-2. 추진체계도	88
그림 V-3. 서비스 절차	89
그림 V-4. 4단계 사후관리 모델	90
그림 V-5.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과정	96
그림 V-6.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 과정	114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아동양육시설 퇴소 이후 금전 문제와 심리 문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연합뉴스 22. 08. 24일자)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기존 지원강화 방안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연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기존 8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전담할 자립지원전담인력도 확충하여 120명을 배치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주거비 등 사례관리 사업대상자 규모도 기존 377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는 보호 종료 이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외 2023년부터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의 인상, 의료비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180명 배치, 주거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은 그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을 하며 이들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및 종결 청소년은 주거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의 사후 지원 대책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퇴소 후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퇴소 청소년에 대한 관련 연구 및 현황정보가 없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전민경, 이지선, 2020).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의 상황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서비스와 실

태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미경과 이지선(2020)의 연구는 경기지역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 후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시설 퇴소 후 청소년의 육구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과 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내용에도 청소년은 입소 후 상담과 보호 및 자립 지원을 받게 되고, 사례 종결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 중 성과 부분에서도 사후관리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시설 실무자는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 표준 연구(김지연, 정정은, 권해수, 2021)가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 부분을 사례관리 내 포함하여 사후관리가 서비스의 흐름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구조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운용 표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국한되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 종결 유형에 따른 대상자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사례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퇴소 후 재가출 예방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모델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각종 서식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모델 및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둘째, 표준화된 사후관리 모델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셋째, 체계적인 사후관리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향과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을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정책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로 나뉜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법 제22조)과 지방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법 제29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법 제30조)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4항에 그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볼 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은 청소년들이 주거주지에서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며, 청소년복지시설은 원거주지로부터 주거주지를 청소년복지시설로 이동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청소년 생활시설임을 알 수 있다.

표 II-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시설 종류	내용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쉼터는 표 II-2에서와 같이 보호기간과 이용대상에 따른 기능을 차별점으로 일시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

터 3가지 청소년쉼터로 구분한다.

표 11-2.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 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p>*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p>*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p>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및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출처: 여성가족부(2023). p. 193.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거리배회청소년의 가출예방, 노숙청소년의 서비스 동기부여를 위해 일시보호를 하는 곳으로 차량 등을 개조하여 청소년을 찾아가는 이동형과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복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며, 상담 및 보호 등의 직접서비스 또는 타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주로 하는 곳이다. 중

장기청소년쉼터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 복귀하여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설의 유형으로는 숙박을 기준으로 숙박을 제공하지 않는 이용형과 숙박형 생활시설을 갖춘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원으로부터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중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 일시청소년쉼터는 시설장을 비롯하여 보호·상담원 4명, 행정원 또는 조리원 1명 총 6명의 종사자가 배치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시설의 청소년 보호인원에 따라 4~9명의 종사자가 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총 4명, 청소년자립지원관은 3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3명 종사자가 배치된다. 이들 종사자에 대해 동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에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전문인력을 시설에 배치하고 있다.

표 II-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단위 : 명)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 명 미만	20~25 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	1(2)
자립지원요원	-	-	-	-	-	-	1	-
행정원	-	-	-	1	1	-	-	-
조리원	-	-	-	1	1	-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1	1	1	-	-	1	1	-
합계	6	4	5	8	9	4	3	2

- * 주: 1) 시설장은 상근이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 2개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법제처 <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5월 20일 인출

청소년복지시설은 표 II-4와 같이 2023년 11월 기준, 청소년쉼터는 총 12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일시청소년쉼터 23개소, 단기청소년쉼터 66개소, 중장기청소년쉼터 39개소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동형 7개소, 혼합형 6개소로 총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회복지원시설은 총 1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II-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수)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이용형		혼합형
	이동형	고정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인 이상				
개수	14	19	9	28	25	4	39	7	6	17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함. (2023년 11월 기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제외

나.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현황

경찰서에 가출 신고된 9~19세 가출청소년은 2019년에 23,783명이던 것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20년에 20,87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23,133명, 2022년에 28,643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2021년에 1,131명을 발견하여 가정에 복귀시키거나 쉼터 등에 연계하는 등 1,255건을 연계하였고, 77개(360명)의 가출팸도 해체하였다(경찰청, 2022).

표 II-5. 2021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지원현황

발견인원	연계조치(건)					가출팸 해체	
	계	가정복귀	쉼터연계	청소년안전망	선도프로그램	개	명
1,131	1,255	931	93	135	96	77	360

출처: 경찰청(2022).

가정 밖 청소년 중 가정에서의 학대 및 갈등 등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출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기에, 경찰에 의해 확인된 가정 밖 청소년은 정확한 통계치라 보기 어렵다.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정

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2020년 청소년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중 가출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있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14,526명)의 10.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실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2.6%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감소한 가출률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은 3.5%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II-1 참조). 이러한 가출경험 비율을 교육기본통계연보의 현황으로 가출청소년을 추정해보면, 2019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5,503,000명이기에 학생 청소년 중 561,306명이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202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5,327,000명 중 170,464명의 청소년이 최근 1년간 가출해본 적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이며, 학교 밖 청소년을 고려하면 더 많은 청소년이 매년 가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김영지, 최홍일(2022). p. 272.

그림 II-1.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식과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앞서 기술한 청소년쉼터이다. 청소년쉼터는 2023년 3월 말 기준, 전국에 137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현황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2,402명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하루 총 수용 인원은 약 2,200명 남짓이며, 일 년에 대략 6,7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II-6.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20,401	21,475	28,627

출처: 여성가족부(2022).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2022년 실적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 자료.

표 II-7.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70	206	324	466	516

출처: 김지연, 윤철경(2021). p.32. 2022년 실적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 자료.

청소년쉼터는 보호 중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면 퇴소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 퇴소 사유는 원가정복귀가 약 46%로 가장 많고, 자립에 대한 욕구로 합의 하에 퇴소한 경우가 약 27%, 타 기관(시설)으로 이관된 경우가 약 9.4% 등의 순이었다(김지연 외, 2021).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역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종사자와의 관계, 시설 프로그램과 취업관련 지원이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미숙, 김형모, 2017). 또한 퇴소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및 취업,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퇴소 준비 부족과 사회적지지 체계가 부족함을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장주현, 김정애, 2015). 일반청소년에 비해 은둔(물리적 고립) 경험이 많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지닌다(김지연 외, 2022). 특히 청소년시설 퇴소 청년의 경우 심리·정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 비율 및 자살 시도 비율이 일반 청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외, 2022).

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사회복지실천 과정의 종결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클라이언트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원조 과정을 통해 얻은 효과와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다(조학래, 2022). 사후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종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그동안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인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 강화를 경험하게 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엄명용, 김성천, 윤희미, 2020). 실무자 또한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회가 된다(조학래, 2022). 사후관리는 클라이언트와 실무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Wells, 1994)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 사후관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때때로 상기시켜야 한다.

박지영, 박화옥, 황효진, 양송이(2011)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사후관리 대상자를 중점관리 대상자, 일반관리 대상자, 잠재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을 정의하였다.

표 11-8.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사후관리 대상자

구분	중점관리 대상자	일반관리 대상자	잠재위험군
내용	취업, 주거, 교육, 의료 등에 지원이 필요한 퇴소아동	시설 퇴소 후 사회자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퇴소아동	시설 퇴소 후 연락이 두절된 퇴소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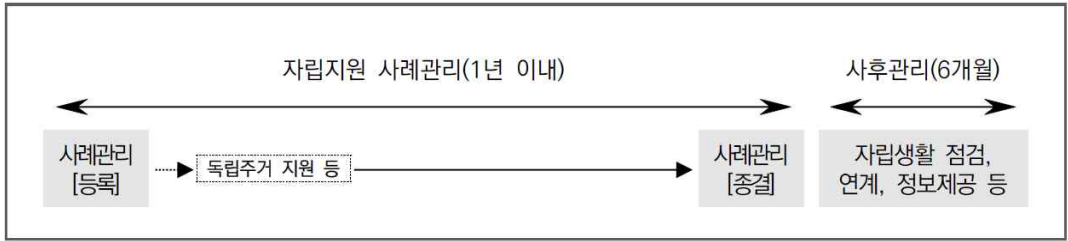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살펴볼 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목표는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방법은 상담, 보호, 자립지원, 사후관리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과 보호, 자립지원은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사후관리는 청소년이 이용 시설로부터 공식적인 관계가 종료된 다음 일정 기간 진행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청소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청소년 입·퇴소 관리 일반원칙으로 서비스 최저 기준 준수(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근거)

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 운영,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내용 및 사후관리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소 및 사후관리 사항으로 퇴소시에는 심층상담을 통해 향후 자립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 지속 사후관리를 위한 거처 및 연락처 등 확보해야 하며, 사후관리 방법으로 쉼터 퇴소(사례관리 종결) 청소년이 또다시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부 전화, 온라인 소통,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제퇴소 또는 무단퇴소한 청소년이라도 기관 연계(타 쉼터, 상담센터 등)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내용에 청소년의 입소 후 사례 종결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모형의 성과에서도 사후관리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후관리 목표치와 내용, 전년도 실적과 달성률을 작성해야 한다. 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외부 지지망 확대, 재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운영모형의 성과에서 사후관리 실적을 성과로 확인하고 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운영모형의 산출에서 사후관리 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서비스 항목 및 서비스 세부 내용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지원)에게 1년 이내의 사례관리와 6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자립생활 점검, 기관연계, 정보제공 등이다. 사후관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심의를 통해 사후관리 기간이 결정되는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6개월 이내, 2회 한도)하되 신규대상자와 경합시 신규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출처: 2022년 청소년사업, p. 404.

그림 II -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수급기간 동안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2년 이상의 청소년쉼터 보호를 받은 18세 이상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매월 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 받았을 것)
- 지급 내용, 재원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 국비 및 지방비 매칭(50:50)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 쉼터퇴소 청소년의 주택 임대 계약 사실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시·도)는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관내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한다. 이때 사후관리 기간은 임대주택 입주 후 1년간 의무, 필요시 추가 1년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 전년과 금년의 목표, 실적을 작성하고 사후관리현황에 사후지도 내용, 즉 경제적 지원, 기술습득지원, 취업지원, 의료

지원, 정서적 지원, 법적 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면접상담, 가정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 표준 연구(김지연 외, 2021)에서는 자립지원관의 사후관리 대상자를 종결유형에 따라 유형화하고 사후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자의 유형은 표 II-9와 같이 합의 종결 대상자, 취업 및 창업, 학원 및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퇴소, 자립의지 부족, 타시설로 연계되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이다. 사후관리 지원 기간은 사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후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탄력적 운영하며 사후관리 계획서를 수립한다. 지원방법은 종결된 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직접방문, 전화, SNS, 문자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관한 소통과 함께 상담, 현장방문, 정보제공, 사후적응프로그램 등의 추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준비활동 지원, 의료지원, 긴급지원과 필요한 자원 등의 자립 관련 내실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명시하였다. 사후관리 계획서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양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9. 종결 유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자

유형	내용
합의 종결	- 자립의 성취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희망에 따라 자립요원과의 합의로 종결된 경우 -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후관리 불가	- 취업 및 창업, 학원 및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퇴소	- 자립의 성취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 자립요원과의 합의된 종결이 아닌 청소년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자립의지 부족	- 자립 전반에 대한 노력 여부가 부족한 경우 - 자립에 필요한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가 거의 없는 경우
연계 및 이주	- 타시설로 연계되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정으로 복귀	-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등

주) 김지연 외(2021) p. 237~238을 참고로 제작성함

청소년자립지원관 사후관리에 대해 김지연 등(2021)은 사례종결 청소년이거나 계획대로 종결되었거나 중도에 종결된 청소년 중 자립지원요인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사후관

리대상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자립지원요원과의 직접 대면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퇴소 후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디서,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연락처 확인,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퇴소 전 정신적, 심리적 이슈가 있었던 청소년은 좀 더 면밀히 관찰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종결 후에도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심리적 지지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김지연 외, 2021).

한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 청소년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보호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반드시 상담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 복귀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거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자립의 경우에는 심층상담을 통해 향후 자립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 지속 사후관리를 위한 거처, 연락처 등 확보하고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청소년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II-10과 같다. 사후관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인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임대주택신청 퇴소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후관리를 1년 간 받게 되며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후관리한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중 자립수당 대상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를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사후관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자립지원수당과 임대주택신청자 외 청소년이다. 또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퇴소 청소년이 사후관리 대상이다. 사후관리의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부와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청소년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을 알 수 있다.

표 II-10. 청소년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후관리 대상 및 내용

구분	사후관리	청소년 유형	기간	내용 및 방법
청소년쉼터	필수	퇴소 청소년	6개월 이상	- 안부 전화, 온라인 소통, 방문, 정보제공 - 고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연계
	필수	퇴소 청소년	1년 (1년 연장 가능)	- (사후관리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시·도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월 1회 이상, 방문(가정 및 취업처)·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 적응 여부 확인, 애로사항 청취·정보제공, 자립 노력에 대한지지 등
	필수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해당 기간	- (사후관리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시·도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청소년의 자립활동 지원 · 주거마련 지원(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 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 시설·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도 프로그램(예, 라이프코칭)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청소년자립지원관	필수	퇴소 청소년	6개월 이상	- 경제적 지원, 기술습득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정서적 지원, 법적 지원 등 - 면접상담, 가정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작성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필수	퇴소 청소년	-	- 거처, 연락처 등 확보 및 청소년안전망 연계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경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 경험을 다룬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데, 전민경, 이지선(2020)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전민경과 이지선(2020)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경기도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청소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보호 및 자립에는 보호종료 후 5년의 특정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소 청소년과의 연대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내 조사 참여쉼터 34개소 중 25개 쉼터에서는 약 550여명의 쉼터퇴소 청소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 종사자가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였으며 그 외 응답자는 모두 종사자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4.4%가 월 1회를 선호하였고, 주 1회도 30.0%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월 1회 또는 주 1회 쉼터 종사자와의 연락을 원하고 있었다. 퇴소 후 1~2년까지는 쉼터의 누군가와 연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사 참여자가 전체의 4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쉼터 퇴소 이후 쉼터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가깝다(가깝다+매우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대부분(약 79%)은 쉼터 퇴소 이후 지금까지 쉼터 선생님과 연락(또는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일상적인 안부’,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혜택 관련 정보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쉼터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퇴소 청소년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퇴소 청소년의 약 86%가 청소년쉼터와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서적 지지와 각종 정보제공과 서비스 지원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유사 기관의 사후관리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후관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하 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의 발견, 개입, 통합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안전망의 사후관리의 개념은 사례 종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개입효과를 유지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상담(매체 등), 정보 제공 등의 사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며, 기간은 3-6개월을 운영한다. 사후관리 방법은 대면상담, 전화·화상·문자·SNS 등 비대면(매체)상담 및 필요시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하는 것이고, 주요 사후관리 내용은 상담 및 심리지원을 통한 고위기 문제 재발방지이다.

나. 꿈드림센터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꿈드림센터는 사례종결한 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상담, 현장방문, 정보제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사례종결 청소년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3-1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사례종결 시 종결보고서와 사후관리 계획(지원기간, 주기, 내용 등)을 작성한다. 사후관리 지원의 방법과 내용을 청소년사업 안내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사후관리 지원 예시

사안	방법	내용
학교복귀 검정고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기관 연계 • 청소년, 부모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관리 등 학교생활 적응 확인 • 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 학업동기 향상 프로그램 지원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적응 모니터링 • 멘토 등 봉사 활동 연계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모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모니터링 • 자격증 활용방안 교육 • 직업훈련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직업훈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연계 • 청소년, 부모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관리 등 훈련생활 적응 확인 •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관 연계 • 청소년 동반자 연계 • 청소년, 부모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 적응 모니터링 • 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 급여 등 근로조건 확인 • 부당대우 발견 시 지원기관 연계
연락두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지인 등 연계 • 청소년 동반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 부모, 지인 등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이사 등 생활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센터 연계 • 청소년, 부모 연락(전화, S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센터 연계 지원 안내 •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사후관리는 인터넷치유학교 프로그램 종료 후 수료 청소년이 향상된 인터넷·스마트폰 조절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반자 등 사후관리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캠프 종료 후 3개월간 실시되고, 사후관리의 내용은 캠프 수료 이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이월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 미연계 수료 청소년의 경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주1회 전화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캠프의 효과성의 유지 확인을 위해 추후 검사를 실시하는데, 청소년은 K척도, S척도, 인터넷사용 과기대 신념, 우울, 자기통제, 가족기능을 검사하고, 부모에게는 K관찰자 척도를 활용하여 검사한다.

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이용 청소년의 치료효과 유지를 위한 가족개입 및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계획은 종결단계에서 단기(6개월)와 장기(1년)계획으로 입교생 여건에 따라 수립한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수료생 연락처 및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정기문자발송(월 1회),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분기별 1회), 사후관리 기록지 및 체크지를 통해 수료생을 관리하고 있다.

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등을 근거로 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자립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법정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보호 기간을 고려하면 아동에 따라 20대 중반까지 사후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연 외, 2012).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시점에서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이 보고되고 시군구는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보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주요 내용

· 보호종료 한지 5년 이내 아동 가운데 위기(at-risk) 사례에 대한 주거, 취업, 보건·의료,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집중적 사후관리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1) 주거지원

- 운영목적: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불안정 해소 및 경제적 안정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내 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지원 사업연계(영구임대, 대학생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등),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연계, 외부공모 사업 연계 등

(2) 취업지원

- 운영목적: 취업·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내 용: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연계 등

(3) 교육지원

- 운영목적: 보호대상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후원연계를 통하여 학습능력 향상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내 고등학생 이상 보호종료예정 아동
- 내 용: 장학재단 연계, 등록금 및 기숙사비·학업보조비 등 지원

- (4) 사례회의
- 운영목적: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별로 슈퍼비전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 도모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 내 용: 사례공유 및 슈퍼비전, 위기사례관리 방법(주거, 진학, 자립정착금 활용 등) 등
- (5) 상담
- 운영목적: 상담을 통하여 해당 지역 내 보호종료아동 욕구파악 및 자립상태 점검
 - 대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내 용: 일반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등

출처: 김지연 외(2021). p. 23-24를 참고로 사후관리 내용만 발췌함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의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서는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대상을 일반 사후관리와 집중지원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민소영, 장혜림, 차유림, 이현주(2021)의 연구에서는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의 일반 사후관리를 기본사후관리로, 집중지원 사후관리 대상을 맞춤형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제안하였다. 기본사후관리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학업, 경제, 사회적 관계 등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연 1회 자립수준을 평가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필요하면 초기상담을 재수행하게 된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학업, 경제, 사회적 관계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2년, 필요시 최장 4년을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2년 이내 통합사례관리 종결이 가능하나 최대 5년은 기본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는 기존 집중지원 사후관리를 맞춤형자립지원의 사례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는 시설을 퇴소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후관리가 아닌 지역 자원의 다양한 연계와 조정을 강조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12. 사후관리 집단 구분과 내용

구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민소영 외(2021)	
집단 1	일반 사후관리	모니터링 → 종료	기본 사후관리	초기상담→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필요 여부 확인시 초기상담 재수행)
집단 2	집중지원 사후관리	자립수준 평가 → 대상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 사후관리 평가 및 종료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초기상담 → 사정 →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기본사후관리

4. 청소년복지시설 사례조사

가. 사후관리 서식

가정 밖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사용 중인 사후관리 서식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서비스종결보고서와 사후관리기록지가 있다. 서식의 세부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자는 서비스 종결시점에 종결사유 및 지원기간, 자립계획, 자립준비도척도의 사전/사후 변화 정도, 사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일자별로 사후관리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연락수단이나 활동사진 등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관리 중인 행정지원시스템에 사후관리 서비스를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B자립지원관의 경우 사례 종결 시 별도의 종결 프로그램을 통해 종결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준비도를 점검하며 종결상담을 통해 단기/중장기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기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 C쉼터의 경우 사례관리보고서에 종결사유, 합의된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고 사후관리 계획에 기간, 방법, 내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후관리 서식에는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확인 대상, 사후관리 방법, 지원내용, 점검내용, 점검평가 의견을 담고 있다. D쉼터의 경우 사후사례관리 과정기록지에 일시/장소별 서비스 실행내용과 사례관리 의견, 개입결과 및 차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별 사후관리대장 및 퇴소자 사후관리 대상자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는 좀 더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식 및 지원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서식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후관리 동의서를 통해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후관리 계획서를 통해 대상 구분(일반, 집중지원)과 사후관리 방법, 주기, 지원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보호종료 후 5년간 매년 1회씩 자립수준 평가를 통해 진학 및 취업 여부, 수급상태, 주거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와 사후관리 종료보고서를 통해 대상별 사후관리 방법, 모니터링 내용, 자립실행 평가를 하고 있다. 서식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II-13과 같다.

표 II-13.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사후관리 서식

시설구분	서식	내용
A 자립지원관	행정지원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서비스종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사유, 지원기간, 자립계획 지원서비스 : 주거, 생계, 의료, 심리정서, 자립교육 자립준비척도 : 사전/사후 변화 정도 종결시점의 대상자 상태 사후관리 계획 : 중점 지원사항, 직업훈련, 주거비, 생계비 지원 등 상담자 의견 : 자립준비 상태, 모니터링 계획 등
	사후관리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별 : 사후관리 내용, 비고(연락수단 등), 담당자
B 자립지원관	종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계획 수립 자립준비도척도 작성(사전/사후) 자립준비점검 : 주거, 경제, 일상생활, 관계, 심리정서, 지역 연계 종결상담 : 단기/중장기 목표 달성확인 사후관리 계획수립 : 사후관리 6개월 이내, 월 1회 이상(대면/비대면)
	서비스종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사유, 종결내용, 지원기간 상담자 의견 : 지원서비스, 자립준비척도 사전/사후 결과,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별 : 사후관리 내용, 비고(연락수단, 사진 등)
C 쉼터	사례관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사유 합의한 목표 합의된 계획 및 서비스 제공 요약 사후관리 계획 : 기간, 방법, 내용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확인 대상 : 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 후견인 등 사후관리 방법 : 전화, 내관, 방문, 온라인 등 사후관리 지원내용 : 정서지원(전화상담 월1회*3회), 물품지원(월 1회 방문 및 식사 1회), 정보제공 사후관리 점검내용 : 현재 상황(학업, 직업, 경제적 측면, 주거, 건강, 심리/정서, 관계성), 미래전망(동기, 목표, 필요한 부분, 가능성) 점검평가 의견
D 쉼터	사후사례관리 과정 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장소별 : 서비스 실행내용(직접/간접), 사례관리자 의견, 개입결과/차기계획
	개인별 사후관리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별 : 대상자, 연락방법(전화, 방문, 사이버, 서신), 최근생활 사후서비스 제공현황(물품, 학업, 취업, 의료, 정서적, 문화 활동, 쉼터행사)

시설구분	서식	내용
	퇴소자 사후관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퇴소날짜, 연락처, 사후관리 기간 비고(사후관리 거부, 자립지원금 고지, 퇴소 청소년 LH임대 주택 고지, 자립지원금 신청, 퇴소 청소년 LH임대주택 신청)
E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사후관리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방법 :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등 사후관리 주기 : 년1회,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등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동의확인 : 서명
	사후관리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구분 : 일반 사후관리, 집중지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방법 :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등 사후관리 주기 : 년1회,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등 주요 사후관리 내용 : 집중지원 대상은 목표, 제공될 서비스, 서비스 제공방법, 모니터링 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비고(담당자 의견 등)
	자립수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학, 취업, 수급여부, 퇴소직전 교육이수 여부, 부모연락 여부, 주거현황(정부지원, 정부지원 외) ※ 평가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매년 1회)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방법 :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등 사후관리 구분 : 일반 사후관리, 집중지원 사후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용 비고(담당자 의견 등)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방법 :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등 사후관리 구분 : 일반 사후관리, 집중지원 사후관리 자립실행 사후관리 평가 : 집중지원 대상은 자립실행 수준 평가, 유지전략, 위기발생시 대처전략 등 포함 비고(담당자 의견 등)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와 청소년복지시설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4와 같다. 정부의 지침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과정 및 서식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관리 과정과 실무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향후 사후관리 과정과 실무자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록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14.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정부 지침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비교

구분	정부 지침				현장사례		비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임대주택지원 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시 조치사항	지속 사후관리를 위한 거처 및 연락처 등 확보	사례관리 종결 시 사후 관리를 위한 거처 및 연락처 등 확보	거처, 연락처 등 확보	-	사후관리대상자 욕 구파악과 분석 실시 사례관리 보고서 내 사후관리 계획 작성 (기간, 방법 내용)	지원종결 2개월 전 청소년 종결준비 시 욕구 확인/ 사후관리 계획수립(서비 스 종결 보고서 내 기록)	-
사후관리 기간	사례관리 종결 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사후관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례심의위원회 를 통해 사례관리 등록 가능(추가지원 기간 1년 이내- 6개월 이내, 2회 한도)하되 신규대 상자와 경합 시 신규자 우선)	6개월	임대주택 입주후 1년(필요시 추가 1년)	3개월을 기본으로 연장 필요시 사례회 의를 통해 1회 연장	6개월씩 2회 최대 1년 이내	사 후 관 리 기 간 3개월 ~1년
사후관리 방법	가정방문, 전화 및 서신/ 가정해체, 가족갈등 등을 겪은 고위기 청소년이 퇴소 할 경우 사후관리와 함께 청소년동반자 연계 강화	면접상담 가장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메일, 채팅)	상담일지에 기록	월 1회 이상 방문 (가정 및 취업처), 전화, 온라인 활용	월 1회 간격 첫 사후관리는 퇴소 후 1주일 이내 실시	월1회 이상 사후관리(대 면, 비대면/SNS 및 전화) 기관 후원물품 전달시 대면지원 사후관리 중 위기상황 또는 대면상담 요청 시 상황에 따라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방향 결정 후 대면 지원	-

구분	정부 지침				현장사례		비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임대주택지원 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사후관리 내용	-쉼터 퇴소(사례관리 종결) 청소년의 반복 위기상황 예방 -강제퇴소 또는 무단퇴소 한 청소년이라도 기관 연 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도권 밖 이탈 방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외부 지지망 확대	자립생활 점검, 연계, 정보제공 등	지속 사후관리를 위한 거처, 연락처 등 확보 및 청소년안전망 연계	새로운 환경 적 응 여부 확인, 애 로사항 청취·정 보제공, 자립 노 력에 대한 지지	정서 지원, 물품 지 원, 정보제공 기타/ 물품, 학업, 취업, 의 료, 문화활동, 쉼터 행사	자립생활(주거, 경제, 일 상생활, 관계, 심리정서) 확인	-
사후관리 동의	퇴소시 해당 청소년과의 상 담을 통한 동의 절차 추진	-	-	-	-	-	양식 부재
양식	없음 -사후관리 사항 등은 반드시 상담일지 등에 기록	없음- 사후관리 사항 등은 반드시 상담일지 등에 기록	-	-	자체 사후관리 대장, 사후관리 과정 기록 지 활용 / 사후관리 서식 활용	자체 사후관리기록지 작성 (사후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종결 내용, 사후관리 일자 사후관리 내용 등	공동 양식 마련 필요
서비스 최저기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	-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	-	-	-	기준 모호
사후관리 종결	-	-	-	-	서비스 종결 기간 만료 사후관리 점검내용 의 척도점수에 의해 판단	-	-
성과	사후관리 실적/건수(단기, 중장기쉼터)	경제적 지원, 기술습득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정서적 지원, 법적 지원	-	-	-	-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CIRB-2023-04-01). 자세한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지원 모델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법률과 사업지침, 행정자료, 정책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외 관련 유사 시설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2. 청소년복지시설 사례조사

청소년복지시설 가운데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 체계 및 서식 등의 검토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중앙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시설은 유형별로 2개소 이상을 선별하여 단기 및 중장기청소년쉼터 각 1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로 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공식적인 사후관리 서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추가로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을 검토하여 사후관리 서식 및 지원체계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현장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FGI)

실무자 초점집단인터뷰는 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회복지원시설’), 단기청소년쉼터(이하 ‘단기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네 개 유형의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인터뷰는

실무자들의 청소년 사후관리에 대한 경험 유사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그룹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 가능하여 실무자와 청소년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입소기간 동안에 제공하는 지원과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구성하고, 이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반면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에 비해 청소년의 입·퇴소가 비교적 자유롭고 입소기간이 짧아서 실무자가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제한되기 쉬운 단기쉼터, 그리고 이러한 단기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보호관찰과 같은 법적인 통제와 심리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와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회복지원시설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FGI를 수행하였다. 이 두 기관은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에 비해 실무자가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전문적 주도성을 갖기 어렵고, 청소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관계와 도움의 기회 여부가 좌우되는 특성이 유사하여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FGI 참여자는 단기쉼터, 회복지원시설,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각 시설유형별로 실무자 2명씩 구성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 실무자 인원을 합쳐, 4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초점그룹을 형성하였으며, 다른 그룹은 회복지원시설과 단기쉼터 소속 실무자 4명으로 구성하여 총 두 개의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120분씩, 총 2회 FGI를 진행하였다.

FGI 참여실무자는 다음 제시된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하였다.

첫째, 청소년 보호시설(회복지원시설, 단기, 중장기쉼터 등) 종사경력 5년 이상으로 입소청소년의 퇴소 후 사후관리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둘째,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인지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

단, 상기 두 요건을 충족한 자라 할지라도 연구참여자의 심리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경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등 심각한 트라우마 혹은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인터뷰 참여를 제한한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목적 및 방법, 녹음과 녹취의 활용,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보상 등에 대해 일차 설명

1)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의 본문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각 시설명을 간략 기재하여 제시하였다.

한 후 참여자들이 연구자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을 문서로 충분히 확인하고, 각 항목별로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각 항목별로 동의 여부상태를 검토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모두 ‘연구의 자발적 참여’와 ‘녹음기 사용’ 항목에 대한 동의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인터뷰와 녹음을 개시하였다.

표 III-1. 실무자 FGI 질문

구분	질문내용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설명 •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
연구질문: 대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실무자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2)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3)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후관리방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4) 사후관리가 진행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향후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면접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소감 •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 구하기

4. 청소년 심층인터뷰

청소년 심층인터뷰는 이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 및 중장기쉼터 퇴소자 2명, 자립지원관 퇴소자 2명, 회복지원시설 퇴소자 1명을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며,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다음 제시된 기준을 충족한 청소년으로 하였다.

첫째, 성별은 남, 여에 따라 시설 퇴소 후에 겪는 경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나이는 시설 퇴소 후에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후기 청소년 연령대인 19~24세 범위로 한다.

셋째, 사후관리 경험 기간은 시설 퇴소 후 어느 정도 서비스 이용 및 어려움을 겪었

던 사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청소년회복시설은 위 조건에 충족 조건을 갖추지 못해 최종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진은 인터뷰 시작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배경, 연구 참여기간,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녹음과 녹취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징구했다. 녹취 결과에 대해 추가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후 연락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터뷰 실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심층인터뷰 질문내용은 다음의 표 III-2와 같이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면접 실시 후 인터뷰 소감을 듣고, 추후 면접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표 III-2. 청소년 심층인터뷰 질문

구분	질문내용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등 설명 •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
인터뷰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경험은 어떠했는가?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어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는가?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가장 도움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4) 청소년들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면접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소감 •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 구하기

5. 전문가 자문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 설계, 모델 초안과 실무자 사후관리 매뉴얼 등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전문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활용하였다.

IV. 사후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결과

1.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FGI 분석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대상 FGI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라는 대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인터뷰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사후관리 경험을 자유롭게 상기(想起)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참여자 개인의 경험들은 그룹 내 다른 참여자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체계의 주요 기능 및 대안을 도출하는 경험적 근거로 분석되었다.

가. 인터뷰 참여자 현황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한국회복지원시설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복지시설(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의 대표자와 실무자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IV-1. 실무자 FGI 참여자 현황

참여자구분	소속기관유형	성별	직위
참여자1	중장기청소년쉼터	여	사례관리자
참여자2	중장기청소년쉼터	여	주임
참여자3	청소년자립지원관	여	팀장
참여자4	청소년자립지원관	여	사례관리자
참여자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시설장
참여자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시설장
참여자7	단기청소년쉼터	남	소장
참여자8	단기청소년쉼터	여	소장

나. 실무자 인터뷰 분석결과

최종 분석된 내용은 아래 표 IV-2와 같이 대주제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수행현황’, ‘사후관리의 한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의 주된 기능들’, 그리고 ‘개선안’ 으로 이에 30개의 세부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 가정 밖 청소년지원 기관 실무자 FGI 분석결과

주제구분	세부내용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증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단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2단계. 사후관계 계획 및 청소년 등의 3단계.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4단계. 종결준비 및 종결 예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확인 2단계.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가정 복귀 준비 3단계 사후관리 계획 4단계. 사후관리수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 처분기간 6개월 종료후 법원, 보호관찰관(사후관리 주무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후관리 요청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대상 설정 청소년의 사후관리 동의 사후관리 지원 및 종결 사례회의를 통한 사후관리 기간 연장
사후관리 수행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욕구보다 기간, 연령 등 규정으로 제한되는 사후관리의 경직된 시스템 너무나 빈약한 지지체계, 다시 고립되는 아이들 중도탈락, 이탈하는 아이들에 대한 속수무책 실무자의 잦은 변경으로 관계혼란, 단절감을 느끼는 아이들 연락두절한 청소년 지원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 사후관리 지원예산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후 청소년 접근 및 관계지속의 어려움 부모들의 비협조 과도한 사례, 취약해지는 실무인력구조 지방의 경우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을 수용해야하는 과부하 다중적인 주무부처 사이에서의 업무, 행정, 책임의 모호성 가정과 시설사이에서의 역할 혼란 아이들이 돌아올 공간부족 	
사후관리가 가져가야할 기능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기록기능 청소년 욕구기반 통합지원 일상적인 의논상대, 선택지원을 위한 생활멘토링 연결성: 관계적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관 내, 실무자간 소통과 협력 - 청소년 기관 간 정보교류 시스템 - 청소년 사후관리 욕구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회의 주거지원 법적, 안전, 위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후 보호자가 사라진 청소년들과의 라포 형성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예방 직, 간접적인 모니터링 갈등관리와 옹호 청소년 개별 도움요청에 대한 그때그때의 지원 자립지원관 거부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 대응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중심에서 자립지향적인 제도로의 개선 사후관리의 질적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사후관리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의 기관/실무자 자발성을 촉진하는 전략 필요 사후관리 전담인력 지원 공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방해하는 불형평적 제도 개선 	

다음은 위 표 IV-2의 분석결과를 각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다. 자립지원관 및 중장기쉼터 분석결과

1) 사후관리 프로세스

대체로 청소년 보호기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립지원관과 중장기쉼터의 경우 청소년과 실무자 모두 자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립지원관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만큼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의 기관 실무자들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프로세스는 아래 표 IV-3과 같이 4개의 단계로 유형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후관리 기간과 상관없이,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긴급한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자가 청소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개별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본 분석결과에서는 이를 ‘예외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IV-3. 실무자 경험에 기반한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증장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증장기쉼터	
단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종결 2개월 전 청소년의 종결준비 상태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종결 후 청소년의 욕구사정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자립 계획 논의 자립계획의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기간 동안 기관의 지원방안 계획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절차 수행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가정복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우선으로 가정복귀 계획 상담 가정복귀 후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와의 협력관계 형성
3단계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에 요구되는 심리사회적 지원 개인의 상태, 환경변화 확인, 모니터링 	사후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회의를 통해 사후관리 계획 수립
4단계	종결 준비 및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지원종결 시점에 청소년에게 사후관리 종결 안내 	사후관리수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가정 상황 점검 필요 서비스 연계
예외 단계	사후관리 규정 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종결 이후 결혼, 임신, 생계어려움, 입대, 대학에서의 학업유지 등 청소년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기관차원에서 개별적인 심리, 경제적 지원 		

○ 자립지원관 사후관리 프로세스:

자립지원관 사후관리는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 사정’, ‘사후관계 계획 및 청소년 동의’,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종결준비 및 종결’ 등 사후관리 규정상 요구되는 기능을 4단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로 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내용은 청소년의 개별적 욕구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사례관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4단계 프로세스와 더불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후관리가 종결된 이후 본격화되는 자립과정에서 청소년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예외단계’로 명명하였다. 이 예외단계의 기능은 실제로 공공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자립을 직면하는 시점에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절실한 요청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립지원관은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운 제도적 지원을 대체하기 위해 후원, 별도 프로그램 등 기관 내부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종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퇴소하기 전에 분기 지원으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분기에 6월 달에 종결하게 돼 있다면 4월부터 종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체크할 리스트들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종결됐을 때 사후관리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적어서 종결 페이지 밑에다. ‘6개월 동안 이걸 진행할 거예요’라고 아이하고 같이 동의한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도 이제 사례 종결 청소년이 계획대로 종결이 됐거나 중도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진행할 때 종결 계획 세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수립하구요” -실무자 참여자3

“6개월 동안 전화나 뭐 카카오톡이나 대면에서 만나서 종결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섯 개의 항목을 나눠서 확인을 하고 있고..” -실무자 참여자4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청소년 개인적 요소, 즉 청소년의 자립 동기, 의지, 자신과 자기 환경에 대한 이해수준, 실무자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예측성과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프로세

스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자신의 ‘자립계획’
- 청소년 자립계획을 근거로 한 ‘실무자의 계획’
- 자립계획-자립생활-자립지원 간의 ‘시간적합성’
- 사후관리에 대한 ‘청소년의 자발적 동의와 도움요청’
- 실무자와 청소년 간의 개별적 ‘관계 및 소통유지’

특히 자립계획-자립생활-자립지원 간의 ‘시간적합성’은 실무자뿐 아니라 청소년 관점에서든 매우 민감할 수 있고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들은 아직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불안정하거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자립을 도와줄 어른 없이 혼자 자립을 시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자립상황은 이들이 자립지원 관에서 예상하고 준비한 ‘자립계획’과 당연히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환경을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자립과정의 부담이 큰 만큼 청소년에게 안정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자와의 관계 지속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청소년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 지원의 양, 지원기간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청소년과 실무자 모두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적응과 대처의 과업이 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과 기관 간 필요(needs)와 지원 제공시점 간의 시간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청소년 욕구에 ‘적합한’ 지원보다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의 지원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다.

사후관리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제로 사후관리가 제공되는 기간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6개월보다 훨씬 넘어서는 장기간 동안 수행되는 것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라 판단된 경우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규정상 시간을 넘긴 사후관리의 경우, 실무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 자원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관리 때도 좀 선생님들이 손이 많이 간 친구예요
뭐 지방으로 갑자기 결혼한다고 내려간 친구 같은 경우는 원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사후관리를 좀 길게 들어간 친구고요.” -실무자 참여자3

“저희는 이렇게 뭐 기간이나 나이 때문에 종결이 됐는데
생계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후원금으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종결한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이 아이들 주거비를 조금 정말 급할 때 지금 절대 낼 수가
없다..
이럴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어려우면
저희가 기관 내부적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치면 사실 사후관리 중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실무자 참여자4

○ 청소년중장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

중장기쉼터의 사후관리 프로세스는 자립지원관과 유사한 절차와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단계별 과업은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확인’,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가정복귀 준비’,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수행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1단계.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확인>은 청소년 개인의 자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청소년과 함께 예측하고,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원하는 자립을 위해 실무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자립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제 자립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제 논의를 아이들하고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 계획을 같이 세워보고.” -실무자 참여자1

중장기쉼터의 경우 사후관리 과업으로 ‘가정복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데,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적 사후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청소년의 가정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가정복귀 이후들의 이슈들을 예측,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보

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기능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쉼터와의 협력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복귀한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의 적응과 퇴소 이후 취업, 진학 등 자기 과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병행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담당 실무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청소년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었다. 단 이러한 소통과 지원의 방식, 빈도 등 모든 사후관리 운영방식은 청소년과 함께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장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에서 별도의 기능으로 두드러지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4단계인 <사후관리 수행 및 모니터링> 과정은 복합적인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규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안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후관리 규정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동의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기능을 유지하는 ‘예외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외단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족과 사회적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청소년이 신뢰에 기반한 다른 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쉼터 실무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아이가 이제 가정복귀 어떻게 진행될지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랑도 좀 논의를 해서 가정복귀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아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요(중략)
사례 회의 통해서 이 아이한테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게 좋을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럼 한 주기 뭐 일주일 이주일 해서 이제 팀을 두고
좀 주기적으로 하자는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과 좀 사이가 좋아져서 좀 안정적이다 싶은 아이들은
일단 한 달에 한 번 저희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근무 1년 달력이 있어요” -실무자 참여자2

2) 사후관리 수행의 한계

○ 청소년의 욕구보다 기간, 연령 등 규정으로 제한되는 사후관리 시스템의 경직성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은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 역량, 대처능력 등에 따라 매우 다르며, 이들이 적응해야 하는 지역사회 상황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자립은 기계적인 프레임 안에서 예측하고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부족한 지지체계,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조언하고 지원해줄 어른의 부재, 인정과 성공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6개월의 자립사후관리 기간을 제도적으로 판단하는 충분성과는 달리, 청소년 욕구 중심으로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자립은 매우 장기적인 전략이어야 하며, 자립지원을 기간이나 자격유무에 따라 ‘유(有)’와 ‘무(無)’의 방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청소년 상황에 따라 ‘유예 과정’이 수용될 수 있는 ‘자립과정’에서의 심층성이 요구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 센터로 보호 조치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후시라도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라도 사실 마음대로 퇴소할 수 없어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연계한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주관하고 있는 시청에서 사례관정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애가 퇴소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와만 저희가 가정 복귀든 뭐 아니면 이 아이가 퇴소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아이의 욕구에 따라서 뭔가 이제 뭐 사후관리라던지 뭐 사례관리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도 안에서 거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실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무자 참여자1

“청소년기본법상으로 이제 청소년이 24세로 되어 있으니깐. 사실 이 기본법을 저희가 뭐 어기고 25세 26세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냥 좀 그런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 같고요.(중략) 친구들 중에 다음 달이면 종결이 돼 있는 아이들이 한 세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두 명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대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뭐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종결이...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휴학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실무자 참여자4

“저희한테 오는 연령대가 만 18세 19세 이러는데 지원을 받다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총 다 지원받아도 스물 둘..(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사후관리로 6개월은 너무 짧거든요 (중략)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오는 친구들은 24살이 돼버리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연령대가 기본이 24살이어서요.” -실무자 참여자3

○ 너무나 빈약한 지지체계, 다시 고립되는 아이들

자립은 청소년이 시설 밖으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제도 환경에서의 청소년 친화적이고 지지적인 요건들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지지체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는 단순히 정서적 측면에서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실무참여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지체계로 정서적이고 심리적 지지체계를 비롯하여, 사기, 신용불량, 보이스 피싱 등 퇴소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와 대처, 그리고 취업, 진로 관련하여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그들의 자립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지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스무 살 이상 아이들 만약에 가정복귀하면 좋지만 도저히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지낼 수 없거나 분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기간에 맞춰서 LH를 지원해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걱정이예요 집에서 지내면 부모님이라도 계실 수 있지만 혼자 지내니까 혼자 생활하는 게 잘하고 있을까? 라는 우려가 좀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실무자 참여자2

○ 연락두절, 중도탈락한 청소년 지원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

사후관리 과정에 연락두절된 청소년이나 시설에서 중도탈락한 청소년은 추적 관리에 한계가 많다. 사후관리는 청소년의 동의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연락두절, 중도탈락은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동의를 거부’ 하는 의사결정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민되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연락두절과 중도탈락하는 청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불안정 수준이 높고, 범죄나 사고와 같은 사회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청소년지원 현장에서는 이렇게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청소년의 안전한 자립 간 딜레마 사이에서 실무자의 자괴감, 내적 갈등이 높은 것으로 진술되었다.

“자기 생활이 또 바쁘고 또 이제 조금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싶으면 아이들이 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오지는 않아요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해줄 게... 어려워요” -실무자 참여자2

“중도로 탈락이나 이탈 때문에 끝나서 퇴소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은 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간 종결을 하거나
나이 종결을 하는 상태예요” -실무자 참여자3

○ 실무자의 잦은 변경으로 관계혼란, 단절감을 느끼는 아이들

많은 청소년시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잦은 실무자의 이직과 변동이다. 이러한 인력의 불안정성은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술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실무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절감, 관계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더욱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실무자는 청소년들이 이미 이전의 담당자에게 진술한 자신의 경험을 재차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매번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실무자 적용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과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호감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시설의 잦은 실무자 변경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상실감’을 초래하는 문제로 분석되었다.

“저희도 선생님들이 전에는 좀 자주 바뀌었어요
선생님들 근무하시다가 뭐 1년 2년... 그러면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는 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는 어떤 케이스인지 물론 듣기는 들었지만,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 변경됐다고 하니까 사후관리는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라포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힘든 거예요
(중략)

그러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그런 경우 그런 사례가 많아서...” -실무자 참여자2

○ 사후관리 지원예산의 부족

충분하지는 않아도 너무 모자라지 않은 예산.

청소년 자립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때론 체납된 공공요금이나 월세비, 대출이자, 학비, 의료비 등 그 금액이 소액에서부터 적지 않은 정도까지 광범위하다. 자립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생활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을 시설을 갖 퇴소한 청소년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혹은 필요한 시점에 빨리 동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자들은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항목을 그대로 사후관리 대상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소생하고 퇴소 논의 그다음에 퇴소하고
그 다음에 이용 청소년으로 등록을 변경을 한 다음에
뭐 거주지 및 안전 뭐 자립 생활 같은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소생일 때는 사실 아까 기타 교육비라든지. 뭐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있어요
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사후관리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희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무자 참여자1

3) 사후관리의 주된 기능들

○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자립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지원은 ‘정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디서 집을 구하고, 어떠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어

떻게 대출과 신용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등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호자를 통해 학습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정보들이 자립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따라서 자립청소년의 사후관리에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이들이 자립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정보제공 창구나 시스템을 실무자가 알려주고 안내하는 것이다.

“청년지원금이라든지. 근로장려금 같이
그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거를 놓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후관리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해 주고 있고” -실무자 참여자4

“이제 자립수당 아무래도 그 전 최근에 사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작성을
제가 해오기는 했는데” -실무자 참여자1

○ 생활 멘토링

시설생활과정에서 본인이 기획, 선택, 결정, 수행,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자립과정에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해야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주된 스트레스 요소 중 하나이다. 본인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이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측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아이디어와 지지로 협력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 청소년 자립 사후관리의 중요한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상에서 소소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멘토로서 청소년들의 한편으로는 격려·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하면서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필요한 건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아직 내가 나를 못 믿었는데 의는 상대가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던 걸 너무 간과하고요(중략)
누군가가 너의 떡거리를 걱정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니가 어떻게 사는지 집을 한번
들여다보고..(중략)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의논할 수 있어 좋아요” -실무자 참여자3

○ 기록기능

실무자가 자주 변경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록과 관련하여 단기컴퓨터에서 중장기컴퓨터로, 중장기컴퓨터에서 자립지원관으로 이동한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시설 간의 정보교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유기적인 청소년지원 연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기록 시스템의 부재가 새로운 실무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해에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후관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집된 청소년의 심리, 사회, 가족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자 개별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록은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후관리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서식, 기록방식,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모를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회의록도 사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따로 이제 윌 관련된 보고나 뭐 달력을 활용한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화이트보드에
구체적인 일정 뭐 누구의 생일 뭐 자립하는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참여자1*

*“(사후관리) 내용들을 방금 ***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후관리 기록지에 좀
남기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지원 시스템에도 입력을 계속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사업 종결이 된 이후에 상담을 몇 번이나 했고
지원서비스는 몇 번이나 받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좀 시스템상으로는 일단 마련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자 참여자4*

○ 네트워크구축

• 네트워크 1. 우리 기관 내 실무자간 소통과 협력

청소년 사후관리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은 청소년의 자립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실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관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이에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실무자 각자가 담당한 사례를 공유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동료실무자들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내부적인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이제 근무 1년 달력이 있어요 (중략)
저기다가 저희 업무도 적지만 아이에 관한 것도 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날 사후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날 기준 다음 한 달을 미리 적어놔요
달력에다 그것을 항상 선생님들 봐요 사례 회의 때도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사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례관리 선생님이랑 공용 달력이 있어요 그걸 매일 체크를 하고 놓치지
않게끔 서로 선생님께 얘기해 주고 좀 이러는 편이거든요” -실무자 참여자2

• 네트워크 2. 청소년 기관 간 정보교류 시스템

하나의 시설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경로에는 여러 청소년시설들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 간 정보교류시스템의 필요성이 사후관리의 주 기능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실무자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수행하는 상황이므로 추후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상에서의 청소년정보 관리체계를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원시스템 관리상 (연락두절된) 아이가 어디 컴퓨터에 머물렀는지 기록이 남다 보니
이 아이가 만약에 최근에 저희 컴퓨터에 왔다가 만약에 일시 컴퓨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선생님이 연락을 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있다가 나왔는데 무슨 일 있냐
그럼 저희도 이제 그때서야 파악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실무자 참여자2

• 네트워크 3. 청소년의 사후관리 욕구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청소년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사후관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자립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의료비, 법적 자문과 옹호기능, 체납된 생활비용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시설의 내부적인 예산규모와 집행 기준에서 기능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의 연대,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입소생일 때는 사실 아까 기타 교육비라든지. 뭐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있어요
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사후관리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희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실무자 참여자1*

○ 청소년 욕구기반 통합지원

인터뷰 참여 실무자들은 사후관리에 있어 청소년의 자립욕구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후관리의 구조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자립의지와 준비를 마치고, 청소년 시설의 지원으로 완전자립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퇴소 직후 6개월은 자립탐색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후관리의 근거는 정책적 드라이브보다는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통합성은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방식, 사후관리 서비스 범위,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후관리의 실천모델로서 사례관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통합적 지원의 기능에는 주거지원, 법적, 안전, 위기보호, 의료, 취업, 진로 신용, 경제, 심리, 정서, 그 외에 발달상 욕구 등 청소년의 자립 욕구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너무 애기고 통합적 자립 지원이

너무 필요하구나를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렇게 5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집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여기에 치중하다가 24살에 종결된
아까 나이 종결이 나왔는데 제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침상으로 24세에 종결한 아이들은
그럼 애는 어떻게 살지가 또 궁금해지기 시 작했거든요” -실무자 참여자3

“시스템 자체 내에서 이용 청소년으로 별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퇴소하는 경우에는 이용 청소년으로 시스템 변경을 해서
사례관리를 유지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라기보다 사실 사례관리의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도 지침 상 6개월 이상 이제 지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무자 참여자1

“아이한테 그냥 항상 상담하면서 정서적인 지원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애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욕구가 아이들은 표출을 해요
제가 이게 그니까 이게 필요하다 라곤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무자 참여자2

“시청에 이제 요청을 하면 LH에 전세임대라든지 아니면 매입임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실무자 참여자1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뭐 보호 조치로 연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의 보호 조치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경우에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가정 폭력이 그냥 가정 폭력이 뭐 단기성을
해서 내가 맘에 안 들어서 나왔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뭐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 쉼터로 보호 조치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실무자 참여자1

○ 사례회의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후관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나 사후관리 기간 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절차로서 사례회의가 사후관리 과정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진술했다. 또한 사례회의는 주1회 또는 기관 여건에 따라 운영하되, 반드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이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자주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 1회는 무조건 정기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모를 수가 없고” -실무자 참여자1

4) 사후관리의 개선안

○ 보호중심에서 자립지향적인 제도로의 개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우리의 청소년 자립 사후관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립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문제 예방’, ‘보호중심’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다시 말하면 자립은 청소년이 제한된 시설공간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가 잠재된 지역사회에서 여러 역할과 관계를 맺고 깨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후관리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 지원 기간, 지원방식, 지원 범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근거들이 없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조금 더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걸 목소리가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거가 조금*

마련이 되면 아이들도 사업관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생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참여자4

○ 사후관리의 질적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청소년의 자립요소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에 넘어서 관계, 시도, 성찰, 청소년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기이해 등 매우 포괄적이다. 사후관리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지원하는 과정인 만큼, 계량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보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청소년에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는지, 스스로 개척하고 적응하는 사회가 넓어지고 있는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기관의 인력, 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 지원하는 정책 시도가 필요하다.

“사후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없어요 그게 이 시설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의 좀 질을 갖춰서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인원을 확인하는 것 밖에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원만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친구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신청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제가 매월 월세를 계속 입금을 해 주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주거지원 몇 번 했네, 이 정도까지만 보이는 거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기관이 품을 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친구의 지금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무자 참여자4

라. 회복 및 단기쉼터 분석결과

1) 사후관리 프로세스

청소년을 장기간 보호 또는 자립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소통과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장기쉼터나 자립지원관과는 달리, 회복지원시설 및 단기쉼터는 실무자와 청소년의 관계 및 보호방식이 청소년의 특성, 심리사회적 상태에 따라 매우 상이한 관계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쉼터의 경우 청소년의 입·퇴소가 청소년의 상태,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실무자들이 사후관리를 준비, 시작해야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퇴소한 청소년과의 소통, 관계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회복지원시설은 특수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원, 보호관찰관 등과의 협력 수준이나 청소년의 사후관리에 대한 동기, 자발적인 의지가 사후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조직구조 역시 기관장이 실무 기능을 담당하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사후관리보다는 청소년과 실무자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중심적인 사후관리가 수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상기 두 유형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중장기쉼터나 자립지원관과 달리 퇴소 후에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문제, 요구에 즉각적이고 대응적인 기능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표 IV-4. 실무자 경험에 기반한 단기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사후관리 프로세스

구분	단기쉼터	회복지원시설
사후관리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대상설정 • 청소년의 사후관리 동의 • 사후관리 지원 및 종결 • 사례회의를 통한 사후관리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처분기간 6개월 종료후 법원, 보호관찰관(사후관리 주무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 •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후관리 요청시 지원

○ 단기쉼터 사후관리 프로세스

단기쉼터의 사후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이 종결평가가 가능한 정도로 안정된 입소생활을 지속하거나 장기적으로 길게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 사후관리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 IV-4에 제시된 내용들이 각각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종결평가 또는 퇴소시점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기능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쉼터의 경우 청소년의 입소기간이 짧고 시설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지금-당장’ 욕구와 동기에 대응하는 단기간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종결평가에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할 때는 사례 회의에 올려서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사후관리)필요하다고 할 경우 다시 제공하게 되죠 대상자 선정도 되는 것이고(중략)
사후관리 퇴소할 때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월 1회 간격으로 3개월만 저희는 좀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중략)
만약에 이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고요” -실무자 참여자8

“장기적으로 길게 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퇴소할 때 동의를 받아야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원하느냐 하면 원한다 하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례관리하는 아이들이 자립한 아이들이거든요” -실무자 참여자7

○ 회복지원시설 사후관리 프로세스

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의 사후관리는 일차적으로 보호관찰소가 수행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후관리에 있어 회복지원시설의 기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회복지원시설이 사후관리의 주기능자로서 역할하기보다 법원 처분기간 6개월 종료 후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보

호관찰소 등 법적 체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사후관리이다.

따라서 회복지원시설 사후관리 프로세스는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청소년 요구에 유동적이고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적인 구조나 절차보다도 회복지원시설 입소청소년과 관련된 법원, 청소년,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은 퇴소 이후에 사후관리는 보호관찰소가 하고 있죠. 6개월 의무적인 처분 이후에 4호 처분 받은 아이들은 남은 6개월 1년간 보호관찰이니까.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남은 1년 6개월에 대한 그거를 보호관찰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 저희가 이제 담당 지역에 보호관찰과과 연결하면 개가 지금 학교를 잘 다니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응대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호관찰관이 오히려 부모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지금 애가 좀 이리는데 상황을 좀 개입해 줄 수 있냐라고” -실무자 참여자5

“여러 가지 폭행 사건이나 이런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굳이 숨기고 이리진 않아요.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후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관계성 가운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야기는 뭐 퇴소 이후에도 뭐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법원에 또 재판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요청이 있어요” -실무자 참여자5

2) 사후관리 수행의 한계

○ 퇴소 후 청소년 접근 및 관계 지속의 어려움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사후관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퇴소 청소년과의 관계 단절이었다. 이렇게 시설과 청소년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청소년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시설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 또는 다른 범죄와 연루되어 소년원에 들어가 있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로,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자신의 노력만으

로 청소년들의 퇴소 후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애가 사라져 버린단든지, 어떤 사건으로 소년원을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실무자 참여자5

“대부분 자립하는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자립하는 아이들에, 해서 관리를 해서 동의 받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연락처를 바꿔버려요 애 연락처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 단절이 돼요 찾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을 많고 해서 그런... 사실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구요” -실무자 참여자7

○ 부모들의 비협조

참여실무자들은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에 부모와의 소통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복귀하거나 자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설에서 부모와의 상담, 소통을 시도했을 때 부모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거나 청소년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입장에서 청소년 사후관리에 있어 가정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청소년에게는 입소 이전의 문제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후관리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보면 학교 밖, 학교 밖 이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상담이 필요한데 부모 상담은 안 오고, 안 오고 뭐 지원만 받기 원한단 말예요. 이걸 아니거든요” -실무자 참여자7

“6개월 의무적으로 지낼 때 정말 이상적인 거는 아이도 좀 심적으로나 뭐나 좀 회복하고 부모도 그동안에 좀 힘을 길러서 가정으로 잘 복귀하면 제일 좋은데, 아이는 조금 달라졌는데 부모가 달라지 않거든요. 근데 사후에 갔을 때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우려가 되죠” -실무자 참여자5

○ 과도한 사례, 취약해지는 실무인력

단기쉼터, 회복지원시설의 실무자들은 사후관리 수행의 구조적인 한계로 적절한 사후관리 사례량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실무자의 안전과 소진을 위한 대안부재를 지적했다. 아래 진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 불안, 공격성, 자해, 자살 등 정서행동적 고위험성이 있어, 입소기간뿐 아니라 퇴소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집중적이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설의 적절한 사례량 기준이 부재하다보니 입소청소년이 많아지는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제 연락두절된 청소년들을 추적하며 위기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입소청소년 보호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워지는 실무위기가 초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실무자들은 과도한 사례량, 역할범주의 모호함, 그리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보호, 지원해야 하는 기본 업무 등으로 인해 소진, 공황 등 심리적 어려움과 업무에 대한 회의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저희들도 숫자가 많을 때는 사후관리가 사실 힘들어요
아이들이 빠졌을 때, 인원이 빠지면
그때 사후관리를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거든요(중략)
솔직히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사실 위기 청소년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위기청소년 5명을 케어하는데 지도자가 열여덟 명인가 케어해요
5명을 케어하는데(중략)
야간 인력을 빼고 낮에 근무하신 분들 야간에 하신. 뭐 한 한 명 두 명이 근무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회복지원센터는 사실 더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선행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무자 참여자7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장기근속자가 없는 이유가
이제 같이 잠을 자야 되는 어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아이들이 너무 자주 들어오고
자살 사고나 기타 품행장애 반사회성..
그런 아이들이 너무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손을 들고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오래 남은 이제 근속년이 오래된 사람도
 약간 소진과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중략)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이제 밀려들어올 때, 입소가 밀려들어올 때 달이 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때 사후관리가 좀 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냐면,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 인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현장에서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실무자 참여자8

- 지방의 경우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을 수용해야하는 과부하

다양한 청소년지원 자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또는 지방의 경우, 단기쉼터에 적합한 청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 이외에 학대피해아동이나 다른 위기청소년을 모두 수용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경우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과 입소청소년 증가로 인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저희들이 지방이잖아요 지방하고 이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부분들이... 여기는 사실 중장기 단기 이걸 떠나서 무조건 이제 받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쉼터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2년 정도를 있어야 LH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고(중략)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든 이런 데서 위탁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24살까지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또 사실 뭐,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사후관리가 좀 뜸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어” -실무자 참여자7

- 다중적인 주무부처 사이에서의 업무, 행정, 책임 경계의 모호성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보고체계, 협조체계가 모두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업무 피로감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기간을 모두 채운 청소년이 회복지원시설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혹은 반대로 보호기간 동안 이탈하는 경우, 실무자는 법원이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요구하는 역할과는 별개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

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실무자의 역할 결정과 책임성의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업무 피로감,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매달 올리고 급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또 올리고 더 급할 때는 판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이탈한 아이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죠.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채우고 나가지만 뭐 쉽터도 인자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도 애들이 그날 이탈하는 애들도 있고 3일 만에 이탈하는 애들도 있고 뭐 뒷일은 일단 뭐 뒷일이니까. 또 잘 채우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한테. 그런 아이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실무자 참여자6

• 가정과 시설 사이에서의 역할 혼란과 부담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시설 구조가 거의 가정집 형태이고 청소년과 실무자가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회복,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공간과 관계 특성이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보고 체계, 평가 등 관(官)을 상대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의 역할 수행이 오히려 청소년 지원과 사후관리를 ‘업무’ 화 함으로써 서로에게 불편함과 괴리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저희가 법제화되고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좀 요구되어지니까. 오히려 이전에 지원 없이 우리가 하던 게 차라리 낫다. 애들만 돌보면 됐는데 이제 관을 상대하고 뭘 계속 뭘가 이거에 대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받는 거보다도” -실무자 참여자5

“이제 회복지원시설이 좀 생겨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출발점은 가정의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시설화되고 나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데들은 어떤 부모의 역할보다는, 즉 보호나 관리 위주로 시설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이 있고” -실무자 참여자6

- **아이들이 돌아올 공간이 없음**

회복지원시설은 퇴소 청소년들이 퇴소 몇 년 이후에도 결혼·출산 등 자신의 신변 변화, 그리움, 이유없는 방문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인생 전반을 고려할 때 회복이 일정 기간 동안에 성취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문이나 연락 자체가 사후관리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방문했을 때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이 시설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의 부재로 긴밀하고 종단적인 사후관리 수행이 제한됨을 강조했다.

“이제 회복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집이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 네 개 있는 한 층이거든요. 그니까 한방은 우리 부부가 쓰고 세 방을 아이들이 쓰고 하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 또 우리는 반갑고 좋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시설에 생활하는 문제인거예요(중략) 애들이 왔을 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입소청소년들과)분리해서 만나는 게 우리는 좋을 거 같은데. 그 분리하는 거 자체도 힘들고” -실무자 참여자5

“방문한 애들은 추억 때문에 와서 좋은데, 지금 있는 애들은 또 이래 불편할 수도 있고(중략) 우리는 상가 건물이라서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밑에 층 나왔을 때 해서 사무실도 하고 뭐 프로그램실도 하고, 하면, 애들 뭐 내려 보내서 그래 하면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애들 왔을 때도 인자 잠깐 내려가서 만나보고 이런. 근데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실무자 참여자6

3) 사후관리의 주된 기능들

○ 퇴소 후 보호자가 사라진 청소년들과의 새로운 신뢰관계 형성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의 사후관리 기능으로 참여자들이 강조한 첫 번째 기능은 ‘관계 유지’ 였다. 현실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담당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통을 시작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나, 그럼에도 꾸준히 청소년에게 연락을 지속하고,

이들에게 시설 실무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사후관리의 주된 기능으로 인지하였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딜레마인데...
짖은 접촉과 상호 작용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략)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주 만나고, (시설로)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가기는 아까 힘들고...” -실무자 참여자6

“자주 뭐 라포형성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편하게 친구처럼 언니처럼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게 형성이 안 되어지면 참 본인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실무자 참여자7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거 이상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만일 신입이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거... 전화든, SNS든 간접적인 연락...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어른들 관리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 -실무자 참여자8

○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 및 지원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하기 위해 학습, 경험해야할 ‘일상생활 기술’ 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후관리의 주된 기능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 기술에는 정신과 약물 등 건강을 위한 ‘약물관리’, 학교,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시간 지키기, 맡은 역할 수행하기 등과 같은 ‘생활지도,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연계’ 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기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부분 또 후기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24세가 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 끊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을 먹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은
제대로 먹는데 사실 정신과 약이 아시잖아요 먹기 힘들다는 거. 알약을 넘기기를 굉장히
힘들어 아이들 많잖아요 결국은 안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중략)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주사를 이렇게 놔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렇게 그 동반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무자 참여자7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제 6개월간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해왔잖아요
지금 이 애가 지akai... 퇴소하면 사실 낮밤이 또 바뀌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부장이나 학생부장하고는 오히려 퇴소할 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죠
여기 지내는 동안 학교를 너무 잘 왔는데, 부모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될거 같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도 하기도 하고...” -실무자 참여자5

“애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런 데를 잘 모르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우리가 직접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아이 같은 경우도 하나가 당장 면접을 보러가고 일을 알바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옷 입을 것 자체가 없는 거죠(중략)나 이런 긴급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 금액은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연결해서 혜택을 본 경우도 있거든요.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해줘도 그런 연계를 해 주는 게” -실무자 참여자5

“자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학교를 잘 다니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자립시킬 때 쉽터 부근으로 이렇게 LH를 얻어주고
있거든요. 관리때문이에요” -실무자 참여자7

○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예방

퇴소 이후 청소년들은 정서적 고립감, 외로움, 범죄 행위 또는 피해, 신용불량, 그
외 불법 행위 등 여러 위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청소년들이 노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들의 고위험성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중요한
기능이라 진술하였다.

특히 이들 청소년의 위기는 자해, 자살 등 생명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진
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사후관리 긴장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제보를 해요 뭐 여기 남자아이들... 저기 무면헌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봤는데요 하는데 이 인제 이러면 이제 저희가 또 연결해서 전화해서 야 와
봐라 그래 가지고 인제 사건 확인하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중략)
이렇게 봐두면 큰 문제 생기겠다. 뭐 남자 아이들 인터넷 사기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뭔가

문제있다는 제보가 아까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입을 하죠. 애를 찾기도 하고” -실무자 참여자5

“이제 고위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비행 예방이나 뭐 범죄 예방이 되겠지만...(중략)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자살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사후관리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는 유타리역할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실무자 참여자8

○ 직, 간접적인 모니터링

회복지원시설, 단기쉼터의 경우 퇴소한 청소년들과 연락을 지속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매우 강하지 않은 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사후관리 과정에서 집중하는 기능은 모니터링이다.

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가?’, ‘청소년은 안전한가?’ 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 시설 실무자의 모니터링은 대부분 간접적인 모니터링, 즉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해당 청소년의 SNS를 접속하거나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듣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인제 인스타로 이렇게 (아이들과 실무자가)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올리는 사진이나 외모 봐도 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쪽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실무자 참여자5

“저희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저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틈틈이 연락도 오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갈 때쯤 되면 군대 갑니다. 언제 들어옵니다. 하고 연락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보가 들어와요. 안 그러면은 저 자식이 요즘 어지 지내노? 그거 그렇게 해서 면허를 따게 하고 하여튼 그런 역할들은 언제든지 할 준비도 돼 있고, 하기도 하죠.” -실무자 참여자6

“가정 복귀 했는데 중기나 전기 청소년도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철저하게... 저희 쉼터 입장에서는 가족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를 안전을 담보로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고부분도 중기나 전기 처음에는 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월 일 이제 아이들한테
 정해놓은 날짜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들 확인해 봤을 경우
 뭐 요즘에 엄마가 안 때려요 요즘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대화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대도 예방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던 거 같아요” -실무자 참여자8

○ 갈등관리와 옹호

인간관계나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 경험하는 사회관
 계에서의 갈등은 사기피해, 임금착취, 부적절한 비난받음, 무시와 차별 등 여러 형태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거나 감정조절,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보호
 하고 옹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자가 대신 옹호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제 연락 와서 어느 선배가 자꾸 돈 뜯어가고 때리는데, 갈등관리잖아요 그러면
 선배를 저희가 아닌까, 연락해서. 또 이제 요즘 애들끼리는 뭐 대부놀이 하듯이 이렇게.
 5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내에 10만 원 뭐 이런 것 속에 감당 못할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불러가지고 원금이 얼마나 어퍼냐 딱 정리시켜서 이렇게
 끝내주기도 하고, 갈등 관리와는 개입을 하긴 하는데” -실무자 참여자5

“갈등관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후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락이 왔던 것
 중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알바를 할 때 점장하고의 사이, 동료들과의 사이 어느 선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디서 끼어들어야 하고 어디서 빠져야 하는지, 계속 야단을
 맞아서 자기가 어떻게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며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그런 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런 정보들과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해받지를 못한다,
 너무 고립되는 것 같다” -실무자 참여자8

○ 청소년 개별 도움요청에 대한 그때그때의 지원

사회적으로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안정적인 관계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단기
 쉼터와 회복지원시설은 안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대상이기보다 자신이 위기

에 처했을 때 ‘SOS’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와 같다. 실무자들의 오랜 경험에서 의미 있는 청소년들의 도움요청은 사후관리 시스템 안에서 제한한 시간이나 내용을 벗어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필요로 할 때 요청하는 개별적인 도움요청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응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후관리임을 역설하였다.

“지난달에 연락 온 아이 같은 경우는 퇴소한 지 한 7년 8년 됐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이야기하다가(중략)
아기를 가지게 돼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데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애들하고는 6개월을 깊이 있게 친하게 지내고 사실 끝내줘야
저희들은 또 그다음 애들에 들어오고 계속 그런 출퇴근 없는 업무 속에서는 이런 걸
하나 챙긴다는 게 저희가 참 쉽지도 않지만
이 부모라면 떠나보낸 아이들이든 누구든 이런 데 대한
삶을 좀 거둬야 되잖아요 애들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고” -실무자 참여자5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관계가 너무 힘든데,
지금 현재 폭력을 행했던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럼 이런 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내가 지금 자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받아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깐 다시 자살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케이스라든가
또 어떤 아이는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모았는데 이게 내가 수입예요
지출을 제대로 한 건지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연락들을 받아서
저희가 네 명 아이들을 다시 이용자로 잡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일주일간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진행했거든요” -실무자 참여자8

○ 자립지원관 거부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 대응

자립지원관 등 제도권 안에서의 자립 경로가 아닌 개별적 자립을 선택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는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자립지원관에 입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관 대신 개인적인 자립을 선택할 경우 단기쉼터나 회복지원시설에서는 동원 가능

한 공식적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립경로에 적합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공식적 자원, 즉 예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는 자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영역이 제가 맞지 않으니깐 제가 최소한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후기 청소년들이 올해는 좀 많아서 뭐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한테 네 명 정도는 이제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데 자립지원관 연계를 엄청 했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다시 이용자로 잡아서 지금 학원하고 운전면허등하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자립을 시키지만 또 이제 저희 인프라가 있으니깐. 혹시 취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쪽에 연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구요” -실무자 참여자8

4) 사후관리 개선안

○ 사후관리의 기관/실무자 자발성을 촉진하는 전략 필요

실무자들은 기존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사후관리가 제도화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과업이 되면서 심리적 압박감, 자발성 저하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적 태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진술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 운영방식을 시설이 시설상황이나 청소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지침으로 그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사후관리 사례량 조절이나 청소년 상황에 맞는 기간 조정의 권한을 축소하고, 규정에 맞춰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체감되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쉼터나 회복지원시설에서의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관과 실무자의 자발성이 회복되고 촉진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기관실무자가 기관과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사후관리 방식을 좀 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반영하는 행정적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단기입장에서 정리해야 하는 게, 회복지원시설도 그렇지만 이게(사후관리) 정례화 되어서 실시를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현장이 매우 어려워요.(중략)

이 업무(사후관리)가 저희는 이제 자발적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이 더 못 견디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다. (중략)
 저는 (사후관리를) 6개월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6개월 딱 픽스해 버리면
 지금 저희는 말아야 되는 사례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자율권이 될 때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이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절차도 밟기가
 굉장히 어려울거다” -실무자 참여자8

○ 사후관리 전담인력 지원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쉼터와 회복지원시설
 에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구조적 장애물은 과도한 사례
 량 대비 전담인력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후관리 개선안으로 사
 후관리 전담인력 지원을 제안했다.

모든 실무자가 사후관리에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전담인력이 지원됨으로써 위기
 요소가 많은 청소년들의 퇴소 이후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크게 향
 상되고, 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전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특히 사후관리는 시설 밖의 청소년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해야하는 만큼
 이들과의 관계집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실무구조로는 입소청소년들
 의 보호와 관리가 우선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는 그 중요
 성에 비해 실무적으로 집중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활성화를
 통한 퇴소 청소년의 자립,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자
 들은 진술하였다.

“좀 애들한테 뭐 주기적으로 전화하는 거 전화부만 형성되면은 잘 지내고 있나 그냥
 안부 전화 정도는 좀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는 너무 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자체가 그게 좀 힘들어요” -실무자 참여자6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무기력, 우울, 자해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청소년)때문에
 사실 우리 전담 인력 그래서 이게 어떤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 몇 년도엔가 한번 지원해 준 적 있었잖아요 일 년인가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그때 지원했을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중략) 시범으로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안타깝더라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하기까지는 너무 버거워요 현장에서서는 별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뭐 시간문제거든요” -실무자 참여자7

“전담 인력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이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이 얼마큼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구요 3인 이상 25인 미만 시설은 전담 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 내부 인력들이 좀 훈련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지고요” -실무자 참여자8

○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방해하는 불형평적 제도 개선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퇴소 청소년 자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LH에 연계하고자 해도, 회복지원시설 보호기간이 주거지원을 위한 요건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장기쉼터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실무자는 회복지원시설 입소 전 기간은 반영하지 않더라도 회복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인 최소 6개월 정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정도 기간이 반영되었을 때 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간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으며, 이렇게 특수 목적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LH에) 연계해서 보내더라도 새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LH가 연속 2년입니까? 1년 있다가 아니 1년 있다가 뭐냐 몇 달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저희 6개월을 쳐주면 저희가 단기로 보내던 중장기라도 자립까지 연계를 할 때 아이가 또 빨리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청소년복지시설로는 같이 되어 있는데, 혜택은 또 다 달라지고” -실무자 참여자5

2. 청소년 인터뷰 결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인터뷰는 시설 입·퇴소 및 사후관리 경험이 있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 수집된 자료는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체계의 주요 기능 및 대안을 도출하는 경험적 근거로 분석되었다.

가. 인터뷰 참여자 현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복지시설(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의 사후관리 경험 청소년 참여자 4명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개인별 1차에 걸쳐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소요됐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유선통화 및 문자 교환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IV-5.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연구 참여자	보호시설 경험	성별	나이	사후관리 기간	자격증(전공)	근로경험	학력
청소년 참여자 1	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남	23세	2년	바리스타 스킬(초급, 중급), 국제바리스타(SCA, EUCA), 라떼아트 초급, 센서리, 브루잉	휴게소	고졸
청소년 참여자 2	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남	22세	2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안전, 소방	선반머신(MCT), 해킹방지장비(KVM) 가설	고졸
청소년 참여자 3	청소년자립지원관	여	23세	6개월	-	○○물류센터(정규직)	-
청소년 참여자 4	중장기청소년쉼터	여	20세	1년	메이크업(전공)	학생	대재

나. 세부 분석결과

분석된 내용은 아래 표 VI-6과 같이 4가지의 주제, 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경험은 어떠했는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어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는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가장 도움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21개의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IV-6.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분석결과 요약

주제구분	세부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경험은 어떠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처럼 의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시던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섭섭함이나 답답함, 허전한 감정을 느낌 •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진 느낌 •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함 •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음 • 돈관리를 위해 저축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로 대출이 쌓이거나 금융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당함 •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취미·여가생활을 절제함 • 친척의 도움으로 가정에 복귀했으나 심리적 갈등을 겪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어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 지지나 간단한 안부 연락, 도움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 도움이 됐음 •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장학금 등의 물질적 지원을 받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가장 도움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만 학비가 부담됨 • 도움 받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월세나 관리비, 식사 해결이 시급함 •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생활가전 마련, 수리비 등)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함
청소년들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이 된 선생님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 근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 별도의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있으면 좋겠음 • 퇴소 청소년에게 절실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목 잡는 규정이 사라져야 함 •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제교육이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음 •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음 • 의무감에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후관리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함 • 사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활경험

○ 친구처럼 의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시던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섭섭함이나 답답함, 허전한 감정을 느낌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물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심리적 영향이 컸다. 시설 퇴소 후 의지하던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마치 친구와 헤어진 것처럼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허전하고 섭섭한 감정이 든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친구나 동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힘들 때 나를 관리해 주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든든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좀 외롭긴 했죠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둘이 막 머리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가끔 모르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답답하죠” -청소년 참여자2

“끝나면 끝난 거긴 하지만 약간 좀 섭섭하다고 할까? 그니까 친한 친구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선생님도 만약에 친구가 없어지면 좀 슬프잖아요. 친구가 멀리 간다거나 그러면 좀 약간 좀 슬프잖아요” -청소년 참여자2

“친구들 문제로 힘들었을 때 딱 아 선생님들이 정말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참여자3

“정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후관리하면서 좋았던 게 그래도 아직 내 곁에 선생님들이 있다? 그게 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나를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되게 저한테 큰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자3

○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느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시설을 퇴소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인 경우 집을 계약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부모의 수입이 합산되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퇴소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고, 당장 집을 계약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고 카드 같은 걸 새로 만든다거나 이제 부모님 동의를 필요하니까...” -청소년 참여자1

“현실적으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별로 상관도 없는데 수입이 같이 계산이 돼가지고 수입이 일정 이상이 넘는다 해서 (국가지원이) 안 나오게 되니까...” -청소년 참여자1

○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함

시설 퇴소 전후시기에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 연결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부 청소년은 자격증 관련 분야에 취업해 근무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분야이거나 열악한 처우로 충분히 숙련된 상태가 되기 전에 단기 근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접 1,440시간 중력이랑 그다음 위험물 안전 뭐 소방 그리고 용접... 특수용접 일단 이런 거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상태거든요” -청소년 참여자1

“바리스타 스킬 초급이랑 중급이랑 SCA, EUCA, 라떼아트 초급, 센서리랑... 커피 향 구분하는 거랑, 브루잉이라고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거 초급 따냈고... 거의 그렇게 5개였네” -청소년 참여자2

○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음

주거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하는 직종은 다양했지만 주로 단순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숙식제공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곳도 의식주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근무를 오래 지속하기에는 열악한 면이 있었다. 그나마 기술직에 근무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숙련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지만, 기계를 다루는 분야라서 체력적인 제약이 있었다. 월급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지만,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 화장품 같은 재료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소비를 하기도 하였다.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규직 직장에 취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청소년 참여자1

“회사에서 제가 하던 거는 선반 머신센터라고 있어요 MCT라 그러는데 그거를 담았어요
금형 안에 들어가는 부품 깎는 그런 건데...(중략)...KVM 이라고 물리적 망분리라고 있거든요
해킹방지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가설하는 일도 했었고,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단순 노동 알바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 기계를 다루는 그런
기술적이었던 말이죠” -청소년 참여자1

“여기서 지내다가 퇴소를 하고 휴게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휴게소는 애초에 약간 좀
그게 의식주가 좀 제공이 되니까. 편하게 들어갔고 (퇴소 후)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이
생기면 알바했을 때 번 월급으로 그냥 버틴 거죠” -청소년 참여자2

“저는 완전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지원을 해주시고, 아르바이트로도 벌고
있고...교통비 그리고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게 더 많긴 한데, 재료비.. 저 같은 경우는
재료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화장품 사고” -청소년 참여자4

○ 돈관리는 저축을 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로 대출이 쌓이거나 금융사기를 당해 어 려움을 당함

경제관리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신용카드사
용 후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과다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유희비 등으로
쉽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나 시설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목
돈 마련이 용이했으며, 자기관리가 잘 되는 청소년의 경우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
에 집중하여 돈을 모으기도 했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여유 금액을 좀 남겨둔 거 빼곤 전부 그냥 다 저축을 했고,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연계받아서 자립통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돈을 모을 생각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행 상품에 비해서
확실히 좀 이득이 크더라고요” -청소년 참여자1

“최근에 이제 뭐 은행에서 사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5,000만원이 안 되는데도 그냥 뭔가 좀
깨끗하게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청소년 참여자1

“돈이 생기면 시내 가서 놀고 싶고 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 나이대도 돈 모으는 사람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뭐 술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일 그제
없었고 한 달 쓰고 한 달 벌고 한 달 쓰는 느낌이죠” -청소년 참여자2

“경기도에서 청소년 통장이라고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 이용을 했었는데 한 100만원 모으긴
모아났었는데 그걸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용하고 있는데, 절대 안 건드리려고 지금
120만 원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4개월인데 2년이 만기인데 연장이 6년까지예요 근데 6년 다
모으면 2,000만 원이 모이는 거니까” -청소년 참여자2

“신용카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할부를 받고 무작정 옷 같은 걸 사제졌어요 카드
값이 절반이 넘어가긴 해요 가끔 안 되면은 빚으로 남아서 요즘 말하는 카드깡으로 막긴
막는데 사태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신용카드 만든 뒤로 좀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 결제 현금화라는 걸 했어요.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상 충전하고, 문상을 제 통장으로
현금 바꾸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해 가지고 휴대폰 요금이 이제 다달이 이제 50,
60, 7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로장려금 들어와서 매꿔질 수 있을 것 같고
아 너무 죽을 거 같아...” -청소년 참여자3

○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취미·여가생활을 절제함

자립 초기에 사회생활로 접어든 후기 청소년의 경우 취미나 여가에 대한 욕구가 많은
시기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돈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을 자제하는 편이었으나, 최소한의
좋아하는 운동 레슨을 받거나 클럽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가 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생계유지 활동으로
인해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반 가정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문화생활이 사치로 여겨질 정도이다.

“최대한 뭐 취미생활이라거나 그런 거에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돈으로 해결을 했고, 참고만
하는 거 외에는 딱히 사치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자1

○ 친척의 도움으로 가정에 복귀했으나 심리적 갈등을 겪음

시설 퇴소 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는 드물지만, 그마저도 순탄치는 않았다. 가정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복귀하더라도, 부모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거나 별거 상태 등으로 가정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보호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시설을 경험한 청소년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진정한 가정이 어딘지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시설 퇴소 시 가정에 적응이 어려우면 다시 입소해도 괜찮다는 격려의 말이 환경을 바꾸게 되는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했다.

“어머니 정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가지고 저한테 이제 죽겠다고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한강에 서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뵈러 이제 속초로 다시 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언제 죽을지...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진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모가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고...(중략)...그래서 저는 훨씬 이제 안심이 높게 됐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모가 저를 데려가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청소년 참여자4

“쉼터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하셔서 그게 굉장히 안심이 됐었어요” -청소년 참여자4

“내 진짜 집이 어디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고.. 과연 이모집이 내 진짜 집일까? 아님 쉼터가 내 진짜 집일까? 이러면서...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이제 집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디를 편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청소년 참여자4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어떤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았는가?

○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 지지나 간단한 안부 연락, 도움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 도움이 됐음

사후관리 서비스는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연락해서 묻기도 하며 심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때로 정부나 지자체의 자립지원 정보를 권유받을 경우, 신청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다.

사후관리 기간 중에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주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시설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연락을 자제하는 면이 있었다. 이처럼 간단한 안부 연락이나 정서적 지지만으로도 시설과 퇴소 청소년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하셨던 간사님이랑은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누군가 연락할 사람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죠(참여자1)
 몇 달 지내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연락도 가끔 오고 근데 선생님들도 바쁘신 걸 아니까 뭐 선뜻 막 ‘다시 지원받고 싶어요’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다 할 일들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연락이 없지만,
 (연락수단은)주로 전화로 거의 했던 거 같아요
 뭐 좀 제가 못 받거나 카톡으로 가끔 하는데..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요즘은 물어보고 있어요” -청소년 참여자2

“초반에는 좀 자주 연락하셨는데 이제 약간 좀 바빠지고 그러니까 좀 뜸해지긴 했어요.
 뭔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시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자4

“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데, 해당하는 것 같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고려해 보고 이제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청소년 참여자 1

○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장학금 등의 물질적 지원을 받음

물질적 지원으로 생활용품이나 중고 가전제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호불호가 있지만 꼭 필요했던 물품일 때는 꽤 유용하게 여겼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받았던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특별한 기회로 여기며 대학 입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사후관리 기간에 주어진 예상치 않은 물적 지원이 퇴소 청소년들에게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생활용품처럼 살 수 있게 지원금으로 식품 같은 거 구매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다음에 좀 목돈 나가야 되는 전자제품 같은 거 있죠. 청소기와 에어프라이기도
 지금 자립지원관에서 받은 거 쓰고 있고” -청소년 참여자1

“물품지원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많이 받았고
어차피 재고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분배를 안 해주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청소년 참여자1

“일단 제일 큰 도움이었던 건 장학금... 어디서 받게 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1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학비 보태가지고
대학 입학하게 되면...” -청소년 참여자4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가장 도움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만 학비가 부담됨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직장에서 좋은 처우를 받는 데 있어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진학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설령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들과 달리 직업을 갖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생활 동안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학비 수준이나 장학제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했으며, 사후관리 시 대학 진학에 대한 장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다.

“저도 최종 학력 고졸인데 근데 지금 어차피 다쳐서 정규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뭔가 좀 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이버대학이라도 대학에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등록금이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등록금 같은 거
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청소년 참여자1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전액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학을 다니게 되면...
통학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년제든 4년제든 최소 1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참여자1

“학비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비용은 있잖아요
아무리 야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좀 어렵죠” -청소년 참여자

○ 가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월세나 관리비, 식사해결이 시급함

퇴소 후에 주거문제는 목돈이 없으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지원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별도의 자기발전 노력이 무척 버거워 보였다. 주거비 지원은 퇴소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하던 안 하든 월세는 똑같이 나가야 되고 관리비 나가야 되고 뭐 집에 가면 밥 해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뭐 사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거든요” -청소년 참여자

○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생활가전 마련, 수리비 등)에 도움이 필요함

자립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마련이나 집수리 등과 같이 고정 지출을 벗어난 뭔가가 발생할 때, 매달 빠듯하게 생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에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불가피한 대출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가전제품 지원이나 불시에 생기는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다면 계획된 소비와 저축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제일 커요 사실은 비싼 생활가전 들이기가 힘드니까 자립지원관에서도 그런 걸 지원해 줘 가지고 분기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게 생활용품처럼 살 수 있게 지원금으로 식품 같은 거 구매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청소년 참여자

“고정 지출을 벗어난 뭔가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이제 내가 한 달 생활을 얼마로 하겠다. 얼마 저축하겠다. 이런 계획적인 지출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다 전자레인지 갑자기 필요하니 사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죠” -청소년 참여자1

4) 청소년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관계형성이 된 선생님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시설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처우가 열악해서 자주 그만두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담당 선생님이 못 버티고 여럿이 그만둔 사이, 쉽게 충원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선생님이 여러 명을 맡으면서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기도 했다. 시설에서 진짜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퇴사할 때 무척 슬프고 힘들어하며 반항적으로 바뀌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않도록 근무환경이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야 자신들을 단지 관리 대상의 하나로 대하지 않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대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 그냥 예 그냥 나는 사례자구나 정도 선이잖아요” -청소년 참여자1

“근무를 하신 고급 인력들이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수급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나 급여라던가 이런 게 좀 좋아져야겠고...그냥 애들 좋아하니까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지 돈 많이 벌고 싶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안 하겠죠. 누가 해요” -청소년 참여자1

“지금 생각 난건데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제가 쉽터에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한 선생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맡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나 뭐 이제 몸 육체적으로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또 그만둘 수도 없으시고, 또 수당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안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취업이 진짜

그니까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새로운 선생님이...” -청소년 참여자4

“슬프죠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이제 진짜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가시니까 애가 이제 완전 반항적으로 바뀐 거예요 선생님들 감당을 또 못하시고
친구 퇴소해버리고...” -청소년 참여자4

○ 별도의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음

시설을 퇴소한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도 버거운 텐데, 퇴소한 자신들까지 겸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리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담당 선생님께서 현재의 사례도 담당하며 퇴소한 청소년들도 관리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면 직원과 청소년 모두 부담을 느끼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사례관리자와 사후관리 전담 직원이 분리되면 기존에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부담을 갖고 일하는 현재의 구조보다 차라리 사후관리 전담 선생님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제한된 실무인력에 사후관리 인원이 매년 쌓이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자 1인당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인당 사후관리 인원이 많을수록 개별 청소년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사후관리 인원에 충실한 인력 운영이 요구된다.

“퇴소자들을 다 관리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사례 담당하셨던 분들이 전담하게 될 텐데 너무 피로가 과중될 것 같고..퇴소 청소년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게 차라리 저는 나올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구체화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인력에도 한계가 있을 테고” -청소년 참여자1

“원래 하시던 분한테 담당했던 사례 퇴소하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뭐 해라 그러면 오히려 그분도 부담감을 느끼고 청소년도 부담감을 느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담하는 분을 따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또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하면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청소년 참여자1

○ 퇴소 청소년이 절실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목 잡는 규정이 사라져야 함

퇴소 이후 겪는 부당한 규정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해체된 상태인데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거나,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쉼터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조건은 개별 청소년의 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아서, 꼭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LH공사 등에서 제공되는 주거지원이나 대학입학 지원금 등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이나 타 부처의 지원 정책을 비교 평가하여 차별적이거나 부당하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설입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런 시설에서 부모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진 몰라도 뭐 지금이야 몰라 저도 나왔을 때 얼마 뭐 연락도 안 됐어요 그냥 집안에 돈 들고 날라가지고...저도 가정폭력으로 재판받았었고, 그 다음에 엄마는 당시엔 연락도 안 됐어요 사이버에 빠져가지고 집안에 결혼 폐물부터 돌반지까지 돈 되는 거 싹 들고 싹 날랐거든요” -청소년 참여자1

“[자립지원수당] 저는 집 나오고 바로 쉼터 입소한 게 아니라, 좀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입소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쉼터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참여자1

○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제교육이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금융지식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하다 보니 사기를 당하거나 과소비로 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투자나 저축, 신용카드사용에 대해 기본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며, 대책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덕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때로는 시설에서 과소비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있을 정도로 돈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무래도 경제관념이 아직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은 뭐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정도” -청소년 참여자1

“돈 관리도 많이 필요한 거 같긴 해요. 과소비를 좀 줄이는 거 그런 걸 좀 예방하는 거... 일단 돈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또 크게 딱딱 박혀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중략)...네 거기서 이제 카드 처음 만들었어요 저는 통장이랑...대충 교육을 받는다고보다 선생님들이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긴 해요. 너 돈 뭐 얼마나 썼나 이러면서 너무 많이 쓰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청소년 참여자4

“어느 정도 좀 도덕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친구들이 살짝 부족해 가지고 그냥 내 생각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도움되는 말을 해도 될 알아 이러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뭐 판단을 못 하니까” -청소년 참여자4

○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음

청소년기는 심리적 특성상 사소한 것에도 상심하고 쉽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홀로 자립생활을 해나가는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인터뷰 참여자도 시설의 담당 선생님이 가끔씩 안부를 묻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든든함을 느끼며,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감이 들었다고 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진짜 진심으로 감동하고 그 선생님을 따를 거 같아요. 일단 포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말을...그런 말이 굉장히 또 상처거든요...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날 절대 포기 안 하겠다. 응 근데 그러려면 또 선생님 굉장히 힘들어지겠죠..너무 이제 직업 정신을 가지시면 오히려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청소년 참여자4

“일단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이렇게 계속 그거를 좀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가끔씩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그 정도? 그냥 가끔씩 안부 물어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년 참여자4

“진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니까 또 애들 마음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갈 때 같아 가지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이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사소한 거에 따라서 이제 다 기분이 바뀌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청소년 참여자4

“마음 한구석에 계속 싫은 척 하면서도 관심 안 주나 관심 안 주나 계속 그랬어요 계속 싫은 척 하면서도 또 이제 귀찮아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해주고 안 물어봐주고 안부 안 물어봐주고 그러면은 되게 서운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래요” -청소년 참여자4

○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이나 정신과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함

시설 퇴소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자살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시설의 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퇴소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요구된다.

“혼자서 지내니까 정말 외로웠을 때가 많았거든요 또 집이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게 생긴 그런 집이거든요...(중략)...내 진짜 집이 어디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고. 과연 이모 집이 내 진짜 집일까? 아님 쉼터가 내 진짜 집일까? 이러면서...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이제 집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디를 편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청소년 참여자4

“자립하기 전에는 좀 엄마랑 단들이 살았는데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이제 사춘기랑 이제 우울증이 섞여가지고 좀 안 좋은 시기를 좀 보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선택(투신)을 좀 했었는데...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지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일단 거기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3개월 정도 거기서 지냈어요” -청소년 참여자4

“일단 쉼터 안에서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다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쉼터에서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서...정신과적인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중략)...아직 좀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어리니까 선생님들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또 상처인 거예요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신과적인 부분에서” -청소년 참여자4

○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음

퇴소 후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은 절실한 문제이지만, 충분한 직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취업 장벽이 클 수밖에 없다.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흥업소 같은 곳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학비나 노트북 등의 학습도구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추천하거나 학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취업문제는 그냥 어딘가로 연결시켜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엉뚱한 데서 일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유흥업소 같은...이건 또 이제 나의 가치를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중략)
만약에 저처럼 이제 대학을 운 좋게 입학하게 되면 또 등록금 같은 문제도 있고 또 따로 사야 되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청소년 참여자4

○ 의무감에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후관리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함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좀 더 체계적인 사후관리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남의 횟수는 단지 의무적으로 몇 번 만나야 한다는 기준보다는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담당 선생님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며, 만남의 형태는 무조건 대면 만남을 강조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비대면이나 대면 만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상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소년은 자주 만나야 하겠지만 직장이나 학업으로 바쁜 청소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의사와 여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비스 내용은 특히 취약한 금융관리에 대해 도움받기를 원했다. 서비스 자세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율적 만남] 강제적이지 않은 게 최우선인 거 같고요. 언제는 무조건 연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쯤 어느 정도 시간의 자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 참여자1

“[만남 형태] 오프라인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 청소년 참여자1

“[대상 유형] 당장 일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자주
만나면 좋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니 직장 다니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맨날 나오라
그러면 짜증만 날 거 같아요” - 청소년 참여자1

“[서비스 내용] 저축도 좀 하고 보험도 이것저것 좀 들어야 되고 이런 조언들을 해주면은
뭐 혼자서 뭐 생각 미처 못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금융문제 같은
거 내가 대출을 너무 절제가 안 되게 막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저축도 좀 하고, 보험도 이것저것 좀 들어야 되고, 이런 조언들을 해주면은 뭐 혼자서 뭐
생각 미처 못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 청소년 참여자2

“[서비스 자세] 제일 이상적인 거는 사례 담당하시는 실무자는 이제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반대로 사례자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이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지” - 청소년 참여자1

○ 사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전담 인력도 없고, 사후관리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
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 기간이나 만남의 회수와
방법,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 좀 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솔직히 약간 사후관리라고 해도 좀 뭔가 좀 더 체계적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세 번
정도 만나서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근황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좀 더
돌아갔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 청소년 참여자2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명이다. 학계전문가 2명,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소장 3명, 사회복지시설 총괄실무자 1명이다.

주요 자문내용은 사후관리 모델 개발 전단계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전문 의견 청취로 진행하였다. 사후관리 모델 개발 이후에는 전문가에게 현장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내용은 사후관리 모델 개발에 적용하고, 일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에 포함하였다. 전문가의 주요 자문 내용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전문가 자문 의견

구분	주요 자문 내용	반영
청소년복지 시설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사후관리 도움 정도가 보다 명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사후관리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청소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장치 필요 ·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된 후 사후관리 현장 적용 필요 · 지역적 상황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모든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에 일시 이동형을 제외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일시쉼터도 적용 필요 - 고정형 일시쉼터도 사후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음 	이동형 일시쉼터를 제외하고 현장의 자율적 선택권 필요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대상자 중 빈번한 시설 입·퇴소자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퇴소 욕구 조사가 어려운 청소년이 있음 · 사후관리가 인권침해 소지도 있음 · 사후관리 대상 여부 파악 단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전, 사후관리 가능청소년과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 구분 필요 - 사례회의시 사후관리 청소년 논의 후 결정 	사후관리 대상여부 파악 반영
사후관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탈락형의 서비스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시로 표기되어 더 구체적인 횡수표기 필요 · 타기관연계시 사후관리 적용 범위의 안내 필요 	중도탈락형의 경우 수시를 필요로 변경
사후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의 퇴소 2개월 전 퇴소 욕구 파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의 경우 3개월 보호가 원칙이고 평균 보호 일수는 더 적기에 퇴소 사전 욕구파악의 어려움 	욕구 파악 일정 수정

구분	주요 자문 내용	반영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욕구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연령대 적용의 어려움: 연령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 - 퇴소 욕구조사표에 초기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됨 - 욕구조사표의 용어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심리, 정서 분야 필요 • 사례관리 번호와 사후관리 번호 통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욕구조사표에 있음, 없음 표시 삭제하고 실무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변경 • 향후 청소년 적용 가능한 측정 지표 연구를 통해 보완 필요-후속연구로 제안
사후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적 안전망: 사후관리 계획시 심리적 고립감에 대해 보다 집중 • 사후관리 욕구 파악시 자원 연계 초점 부각 필요 • 세부 내용 정리 필요 • 도움을 준다, 연계한다는 용어 사용시 실무자가 해야 하는 업무의 하나로 파악하기에 조금 수위 조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수정
자원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안전 및 건강지원 내 자살예방센터 포함 • 어떤 상황에서 연계가능한지 서비스 소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수정
가정복귀 유형 팁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보호자 분리 모니터링 필요 • 갈등상황, 양육태도 평가보다는 가정복귀 후 가정의 변화에 초점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로 쉼터에 입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수정
사후관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 - 중앙정부의 지원 외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 필요 - 실인원이 많은 쉼터의 경우 사후관리 여력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언 제시
사후관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예산 사용이 보다 명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언 제시

V. 사후관리 방안

1. 사후관리 개요

가. 사후관리 목적

사후관리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시설 퇴소 이후, 청소년과 지속적인 지지 체계 유지를 통해 해당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 및 사회에 적응하도록 청소년의 관점에서 일정 기간 정보 제공,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지원하는 실천과정이다.

나. 법적 근거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동법 제1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무적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강제퇴소사유 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서 입소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사후관리 해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서 입소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다. 대상

사후관리의 대상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다.

단 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이동형은 가정 밖 청소년 아웃리치를 통한 연계와 기출예방 사업이 주요 업무이기에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고정형은 많은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보호기간이 짧아,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시설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입장에서 유익을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기간

사후관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과 청소년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임대주택 신청 청소년은 1년 이상 실시한다.

마. 방법 및 내용

사후관리 방법은 대면과 전화·화상·문자·SNS 등의 비대면(매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며, 필요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퇴소 청소년과 지지체계를 유지한다.

바. 사후관리 개입 시점

사후관리 개입 시점은 통상 그림 V-1에서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가 종료되

고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할 때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 퇴소 시점에 퇴소 청소년에게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사후관리 동의서에 동의한 청소년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후관리 개입 시점에서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서비스 지원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입소 및 이용이 결정된 시점부터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지점까지를 서비스 제공의 시점으로 보게 될 경우, 초기 서비스 이용 합의와 동의 절차 시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은 서비스 개입 초기에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즉 초기 이용부터 퇴소 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종합 안내와 동의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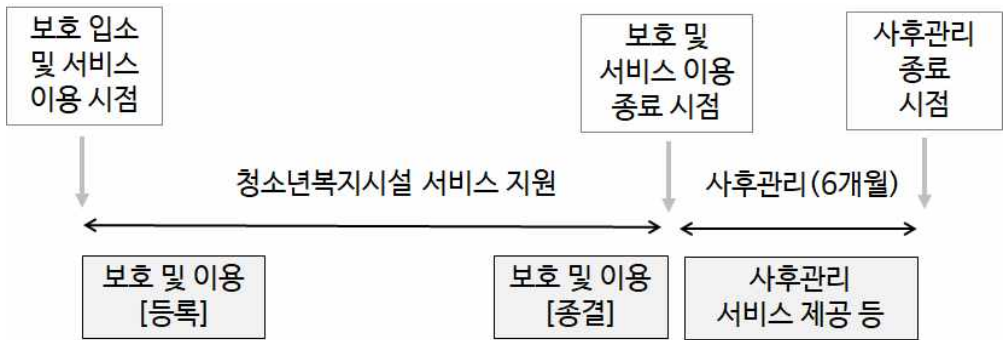


그림 V-1.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관련 개입 시점

표 V-1. 사후관리 절차에 따른 각 주요 시점별 업무

구분	내용	행정 서류
보호 및 입소 서비스 이용 시점	입소자 동의서 작성 시 사후관리 내용 명시	서비스 이용 동의서 서식 퇴소기준
보호 및 입소 서비스 이용 종결 시점	퇴소 전 청소년 욕구 파악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안내	사후관리계획서 서식 사후관리 재안내 서류 사후관리 동의서
사후관리 종결 시점	사후관리 종결 안내	사후관리 종결보고서

사. 추진체계

사후관리 추진체계는 그림 V-2와 같이 기존 시설운영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각 시설에서는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를 기존 청소년 사례관리자가 담당할 것인지, 신규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추진체계별 역할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사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내 사후관리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사용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과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관내 기관의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후관리 운영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사후관리 보고 등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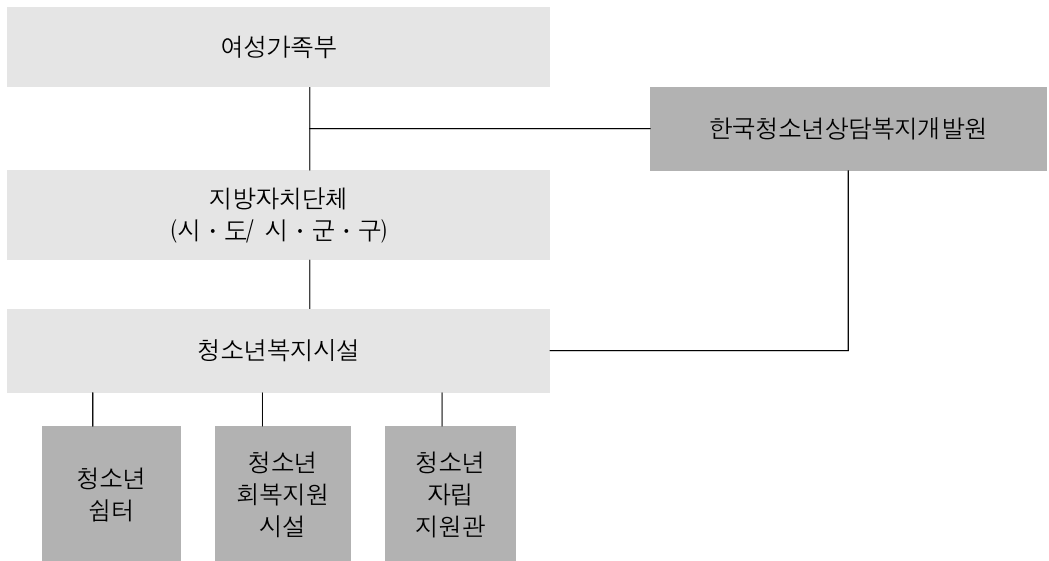


그림 V-2. 추진체계도

표 V-2. 추진체계별 역할

구분	내용
여성가족부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사후관리 포함)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 총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검토, 조정 관내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연계 및 조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후관리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계획 수립 퇴소 및 이용 청소년 사후관리 예산 집행 및 사후 서비스 보고

아. 서비스 절차

기존 청소년사업 안내에서 제시된 단기 및 중장기년셈터 서비스 절차 흐름도는 접근 단계, 서비스단계, 종결단계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술한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과정에 포함하여 그림 V-3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셈터 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사례관리(36개월 한도)를 받게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서비스 절차를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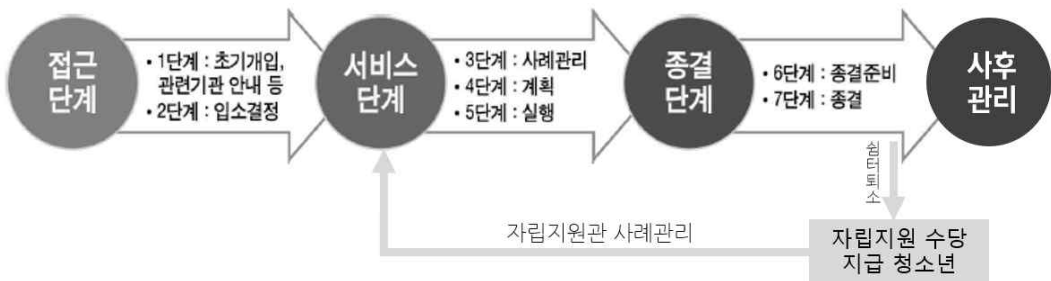


그림 V-3. 서비스 절차

자. 사후관리 운영모델

가정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 운영모델은 각종 자료와 인터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림 V-4와 같이 4단계 사후관리 과정과 사후관리 기능, 사후관리 유형과 종결 유형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 과정은 1단계 퇴소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3단계 사후관리지원 및 모니터링, 4단계 사후관리 종결준비 및 종결이다. 사후관리의 기능은 관계적 안전망, 안전 및 건강지원, 갈등관리지원, 경제 및 주거지원, 교육지원, 법적지원이다. 사후관리 유형은 기본 사후관리형, 집중 사후관리형, 잠재 사후관리형이며, 종결유형은 목표달성형, 기관의뢰형, 거부형, 만료형이다.



그림 V-4. 4단계 사후관리 모델

2. 사후관리 유형

가. 사후관리 유형

사후관리 유형은 표 V-3과 같이 대상자의 적응 여부에 따라 지원형태를 기본사후관리형, 집중사후관리형, 중도탈락형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기본형은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안부 인사나 격려와 지지,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다만 시설 퇴소 초기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초기 한 달간은 매주 1회 이상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집중형은 서비스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서비스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시설 퇴소가 이루어진 대상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집중형은 기본형보다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면서 사회 적응상태를 예의주시(銳意注視)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시설 퇴소 직후 초기 한 달간은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매주 1회 이상 연락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거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시 지원대상의 일터나 주거지 부근의 카페 등을 방문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조언이나 격려를 할 수 있다. 특별히 부적응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사례관리 대상으로 재등록하여 일정 기간 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중도탈락형은 사후관리 만료 이전에 서비스 목표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을 무단 퇴소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한 대상으로, 수시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SNS나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연락이 재개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본형이나 집중형 중 하나로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중도탈락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종결유형 중 하나인 ‘거부형’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쌍방향 소통이 불가하더라도 자립이나 사회적응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시마다 SNS 등을 통해 일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사후관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3. 사후관리 유형

유형	대상 설명	사후관리 내용	서비스 주기
기본 사후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목표가 달성됨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응 일반 모니터링 안부인사, 격려와 지지, 서비스 정보 제공 	분기 1회 이상 (퇴소 직후 1개월간 매주 1회)
집중 사후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서비스기간 만료 등으로 퇴소함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응 집중 모니터링 애로사항 파악, 서비스 정보 제공, 방문상담, 자원 연계 필요시 사례관리 재등록 	월 1회 이상 (퇴소 직후 1개월간 매주 1회)
잠재 사후관리형 (중도탈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만료 이전에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퇴소,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지속 제공(SNS나 이메일 등) 연락재개시 기본형 또는 집중형 중 하나로 선정하여 재개입 	필요시

나. 사후관리 종결 유형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의 표 V-4와 같이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목표달성형, 기관의뢰형, 거부형, 만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목표달성형은 사후관리 목표가 달성되어 서비스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은 사후관리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된다.

둘째, 기관의뢰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개별 목표와 여건에 따라 타 기관에 의뢰되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종료된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은 의뢰된 기관에서 별도의 담당자가 연결되어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부터 더 이상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 다만 의뢰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내담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협력할 수 있다. 의뢰기관은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쉼터, 직업훈련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셋째, 거부형은 사후관리에 대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부의사의 예로는 2개월 이상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은 되더라도 소극적 응대로 일관하거나, 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넷째, 만료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다만 이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사회적응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을 6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장애, 질병, 지적장애), 대학재학,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이 진행될 경우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본인의 의사나 여건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현재 법정 서비스 연령은 만 24세까지지만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 때는 본인의 의사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최소 만 30세까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서비스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요구되며, 서비스 기간 연장에 따른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V-4. 사후관리 종결유형

종결유형	유형 설명
목표달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목표가 달성되어 서비스 계약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 사후관리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기관의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개별 목표와 여건에 따라 타 기관에 의뢰된 경우 • 의뢰된 기관에서 별도의 담당자가 연결되어 사례관리를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후관리가 불필요함 ※ 의뢰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직업훈련시설 등
거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 예시 : 의도적인 연락두절(2개월 이상), 소극적 응대(연락은 되지만 불편해 함), 약속 불이행 등
만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후관리 과정

사후관리 과정은 표 V-5와 같이, 1단계 퇴소 전 사후관리육구사정,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3단계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4단계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로 실무자들의 업무, 유의사항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V-5. 사후관리 과정

단계	구분	내용	서식
1단계	퇴소 전 사후관리육구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종결 1~2개월 전 청소년의 퇴소육구 확인, 사정 - 단, 단기쉼터는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육구조사표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동안 기관의 지원방안 계획 •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 •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절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계획서 • 동의서
3단계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에 요구되는 심리사회적 지원 • 개인의 상태, 환경변화 확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지
4단계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지원종결 시점에 청소년에게 사후관리 종결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종결보고서 • 서비스 의뢰서

참고: 사후관리 유형별(기본/집중/잠재) 사후관리시 유의사항은 매뉴얼에 제시함

가. 1단계 퇴소 전 사후관리 육구사정

사후관리는 퇴소 이후 처음 직면하고 대처해야하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적응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처와 보호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수행기관이 청소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욕구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실천과정이다. 청소년들에게 퇴소 이후의 생활환경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지지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학습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

운 주거(住居), 고용계약, 통장 및 신용카드 관리,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의 사회적 상황에 부적응하거나 고립되는 등 개인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박지영 외, 2011).

청소년복지실천 프로세스상에서, 사후관리는 퇴소가 발생한 이후에 제공되는 마지막 보호단계에 위치하지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혼자 대처해야 하는 일상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시작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퇴소 이전부터 성격, 건강상태, 사회적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등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그들이 선택한 퇴소 이후의 생활 방안,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 수준 등에 대한 개인 욕구를 면밀하게 사정하고 준비하는 사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사후관리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 욕구 사정은 최소한 퇴소 2개월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으로 퇴소 준비는 ‘입소-시설생활-퇴소-자립(일상생활)’의 전(全) 과정이 청소년 삶에서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생활화되고, 청소년 스스로 준비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입소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단적 관여와 지원이 가능하려면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전제를 실현가능하도록 이끄는 정책과 행정적 기반이 아직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 장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실무자 경험을 근거로 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계	과업	내용
퇴소 준비 - 사후관리 욕구사정	청소년 퇴소 이후 생활 계획/기대 확인	<p>퇴소 최소 2개월 전 확인 (단, 단기쉼터 및 입·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 등 퇴소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퇴소 이후 욕구 파악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청소년에 대해선 예외 적용)</p>
	퇴소 이후 청소년의 생활 방안 논의	<p>퇴소 이후 청소년의 생활계획에 대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심리적 안전 가능성 (폭력, 학대, 착취 가능성 등) · 기초생활유지가가능성 · 청소년의 자아감, 자존감 유지가능성 · 청소년의 성장가능성 · 청소년의 자립가능성(진로연계성) · 청소년의 지지체계형성 및 유지가능성 · 현실적인 성취 가능수준
	욕구조사	<p>조사욕구범위: “청소년이 기대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준 - 개인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지출규모 - 생활비 관리, 공공요금 관리, 저축, 신용관리, 대출 등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 진로방향과 진로계획 · 가족관계 및 가족 내 청소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후 청소년이 가족을 부양/보호해야하는 경우 - 가정복귀 후 학대/폭력 예측 경우 · 고립감, 우울 등 정서적 욕구 해결방법 ·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상황에서의 대응 · 개인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 그 외 퇴소 이후 염려되거나 대처에 자신 없는 개인 이슈 · 퇴소 이후 시설 담당자와의 관계 및 소통방식
	파악된 욕구에 대한 점검	<p>청소년의 적극적인 욕구 제시와 실무자의 분석적 검토</p>
	파악된 내용 중 청소년 스스로 대처 가능한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 구성	<p>청소년 스스로 대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욕구와 실무자 지원이 요구되는 욕구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처가능한 욕구: 청소년의 대처역량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 대처가 어려운 욕구: 청소년과 실무자,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계획

그림 V-5. 퇴소 전 사후관리 욕구사정 과정

○ 청소년 퇴소 이후 생활 계획 및 기대확인

퇴소를 앞둔 청소년과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기대,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관점에서의 퇴소 준비를 위한 과정 의미가 있다.

시설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퇴소’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실제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생활과업으로서 ‘퇴소’를 인지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 부정, 두려움 등 심리적 위기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하거나, 혹은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시설의 규제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에 치우쳐 적절한 퇴소 준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퇴소 시점에 최대한 준비된 상태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입소 생활에서 탈락하지 않고 퇴소 시점에 다다른 청소년은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청소년복지시설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보호체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퇴소는 불안과 자유로움 사이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청소년의 퇴소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태도를 파악하고 청소년 나름대로의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기대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퇴소를 앞둔 자신의 역량과 퇴소 준비 상태를 인지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실무자 관점에서의 퇴소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이다.

실무자는 이미 많은 퇴소 청소년의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당사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들의 퇴소 이후의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퇴소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자유로움에 대한 양가감정과는 다른 차원의 염려와, 그들이 잘 독립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청소년의 퇴소 준비에 대해 어디까지가 실무자의 역할이어야 하는지, 사후관리에서 수행해야 할 자기 역할의 범위와 책임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무자의 사후관리에서 역할과 책임성은 바로 청소년 스스로가 결정하는 퇴소 이후 생활과, 이 생활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퇴소 준비를 위해 수행하는 이 첫 단계, 즉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계획과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은 청소년과 실무자 모두에게 앞으로

‘어떠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것인가?’ 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소년과 실무자가 어떠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는가?’ 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계획/기대감 확인에 참조할 수 있는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은가?
 예) 익숙한 현재 지역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큰 도시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아는 사람 없는 지역 등등
- 어떠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싶은가?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등록금
 -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직종
 - 학업의 경우 대학, 전공
-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는가?
- 주거는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가?
 예) 임대주택, 셰어하우스, 청년주택, 서울에서 가장 싼 월세 등등
-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가?
 예) 가족, 같은 퇴소 동기, 학교친구...
- 퇴소 후 가장 기대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 퇴소 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퇴소 준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를 최소한 2개월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실적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이 퇴소 준비에 충분한 기간이라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과 함께 퇴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사항을 고려하는 데 있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 청소년의 입·퇴소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중장기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비해 퇴소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퇴소 준비 2개월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기쉼터는 퇴소 준비 2개월을 기본 요건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또한 청소년중장기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 할지라도 퇴소

이후 사후관리 계획을 청소년과의 협업만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 가정복귀가 어려운 13세 미만 저연령 청소년
- 시설 입소 중 중간 이탈 청소년
- 사후관리 부동의(不同意) 또는 거부 청소년
- 퇴소 시점에 심리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잠재적 위기 요소가 있는 청소년

예) 가정복귀 및 적절한 지지체계가 없는 지적장애 청소년

자발적인 약물과 증상관리가 되지 않는 정신증상이 있는 청소년

자해, 자살 등 심리적 위기 청소년

학대 및 폭력피해, 범죄 등 안전 위기에 취약한 청소년 등

실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무자 FGI에서는, 상기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참여자는 기관이나 실무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해 계속 청소년을 추적하며 모니터링하거나 서비스 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시설마다 사후관리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요건에 있는 청소년을 사후관리하면서, 실무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 그리고 현재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과 사후관리 청소년 사이에서의 업무균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였다. 특히 가정복귀가 어렵고 보호체계가 취약한 지적장애, 정신질환, 자해나 자살고위험 퇴소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사회 여건상, 청소년의 생활구심점이 없이 퇴소한 청소년을 시설 담당자가 ‘사후관리 명목’으로 재차 집중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2차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개월 퇴소 준비를 위한 최소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모든 청소년 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보다, 시설과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쉼터와 상기 요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의 경우, 이 준비 요건을 예외로 하고, 이 요건의 적용 여부는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각 시설의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예외의 상황을 잘 기록하여 보관한다.

○ 퇴소 이후 청소년의 생활 방안 논의

퇴소 이후 청소년의 생활 방안 논의 과정에서 실무자는 청소년의 자기 생활에 대한 현실적 판단능력, 사고방식, 대처능력,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퇴소 후 생활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학습하는 기회가 된다.

이 단계에서 실무자는 퇴소 이후 청소년의 주관적인 생활계획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때 실무자와 청소년은 아래의 질문을 고려하여 탐색하고 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제시하는 생활계획이나 생활 방안은...”

- 폭력, 학대, 착취 가능성 등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의식주를 비롯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청소년의 자아감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계획인가?
- 청소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청소년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가?
-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가?
- 청소년의 이 계획, 방안은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 청소년이 제시한 퇴소 이후의 생활방안을 방해할 요소는 무엇인가?
- 청소년이 제시한 퇴소 이후의 생활방안을 성취가능하도록 하는 강점은 어떠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실무자와 청소년은 퇴소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과, 이 실현 가능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통제하거나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탐색하도록 한다.

이렇게 청소년이 실무자와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퇴소 후의 생활과 그 계획안을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앞으로 자신

이 수없이 수행해야 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욕구조사

앞서 수행한 두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은 처음에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퇴소 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욕구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실무자는 이 단계에서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의 근거가 되는 ‘퇴소 후 욕구’, 다시 말해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탐색할 수 있다.

○ 파악된 욕구 점검

표 V-6에 제시된 내용을 청소년으로부터 확인한 다음, 실무자는 청소년과 함께 상기 내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제시한 욕구를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운 욕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실무자는 본인이 사정한 욕구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위축되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이 퇴소 이후 생활과 자기 욕구에 대한 성찰이 깊을수록 먼저 제시한 욕구와 다르거나 새로운 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오히려 청소년이 욕구를 번복하는 상황이라면, 실무자의 반응은;

“어떻게 새로운 욕구를 인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지난번 제시한 욕구와 다른 욕구를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청소년과 좀 더 깊은 대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무자와 이전에 논의했던 퇴소 후 생활과 욕구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고, 실무자에게 이를 표현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은 경험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6. 사후관리 욕구 탐색

욕구범주	내용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 표)
1. 노동 (취·창업)	원하는 일자리는?	<input type="checkbox"/> 노동(취업)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노동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2. 교육	원하는 교육은?	<input type="checkbox"/> 학업 지속의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학교생활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상급학교 진학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술교육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3. 경제	원하는 소득수준은? 현재 준비자금은? 현재의 금융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주거	현재 가능한 주거형태는? 원하는 주거형태는?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원한다(원하는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5. 건강	현재 진단명은? 현재 정기적인 외래 여부는? 현재 처방된 약물복용여부는? 퇴소 후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퇴소 후 염려되는 치료유지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신체 질병이 있다 5-1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2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input type="checkbox"/> 신체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5-4 본인이 느끼는 주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 환청,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5-5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6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이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욕구범주	내용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술, 약물 의존, 중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게임, 인터넷, 도박 등의 과몰입 및 과의존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간 갈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낼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내는 가까운 친구나 의미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7. 안전	퇴소 후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어떤 때 위기인가?)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안, 법적 문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는가? 본인이 권리침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가?	<input type="checkbox"/> 처리해야 할 법률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사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적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문제나 권리침해 발생시에 대한 대처 정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9 시설과의 관계 및 소통방식	사후관리 시 시설 선생님과 소통을 원하는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설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시설관계자와 꾸준한 면담 등을 원한다 (원하는 소통방식 기재) <input type="checkbox"/> 타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타 시설의 이용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사후관리를 망설인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 파악된 욕구 중 청소년 대처 가능한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 구성

퇴소를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점검하는 ‘청소년의 욕구 대처 가능성’에 대한 사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소년과 실무자가 앞으로 어떠한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즉 퇴소 후 생활과정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청소년이 함께 퇴소 시점까지 이 대처역량을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확신하는 ‘자기대처역량’을 실제 퇴소 후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반면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욕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실무자가 다양한 정보, 자원을 제시하고, 이 중 청소년이 활용가능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즉 정보제공, 교육, 코칭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렇게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소년과 실무자가 어떻게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에 기반한 실천이 청소년과 실무자가 사후관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협력방식이 되기도 하고, 사후관리 종결 이후에 청소년이 시설을 떠나 일상에서 살아가는, 혹은 완전 자립하기 위한 경험학습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퇴소 준비 과정에서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퇴소 준비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수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고자 한다.(표 V-7)

표 V-7. 청소년 퇴소 후 욕구 및 대처 준비를 위한 논리점검표

욕구범주	내용		청소년이 대처가능한 방법	대처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청소년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대처가 어려운 이유	원하는 도움방법
1. 노동 (취·창업)	원하는 일자리는?	<input type="checkbox"/> 노동(취업)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노동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2. 교육	원하는 교육은?	<input type="checkbox"/> 학업 지속의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학교생활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상급학교 진학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술교육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3. 경제	원하는 소득수준은? 현재 준비자금은? 현재의 금융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주거	현재 가능한 주거형태는? 원하는 주거형태는?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원한다 (원하는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5. 건강	현재 진단명은? 현재 정기적인 외래 여부 는? 현재 처방된 약물복용여 부는? 퇴소 후 염려되는 건강문	<input type="checkbox"/> 신체 질병이 있다 5-1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2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욕구범주	내용		대처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청소년이 대처가능한 방법	청소년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대처가 어려운 이유 원하는 도움방법
<p>제는? 퇴소 후 염려되는 치료유 지문제는?</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input type="checkbox"/> 신체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5-4 본인이 느끼는 주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 환청,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5-5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6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이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가족 및 사회적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술, 약물 의존, 중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게임, 인터넷, 도박 등의 과몰입 및 과의존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간 갈등이 있다		

욕구범주	내용		대처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청소년이 대처가능한 방법	청소년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대처가 어려운 이유	원하는 도움방법
관계	가족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낼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내는 가까운 친구나 의미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7. 안전	퇴소 후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어떤 때 위기인가?)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안, 법적 문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는가? 본인이 권리침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가?	<input type="checkbox"/> 처리해야 할 법률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사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적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문제나 권리침해 발생시에 대한 대처 정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9 시설과의 관계 및 소통방식	사후관리 시 시설담당자와 소통을 원하는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설담당자가 장 필요한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시설관계자와 꾸준한 면담 등을 원한다 (원하는 소통방식 기재) <input type="checkbox"/> 타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타 시설의 이용을 안내하여 서비스 받을 의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사후관리를 망설인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나.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계획된 사후관리에 청소년이 동의하는 과정은 청소년 스스로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전망과 안도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사후관리의 계획과정에서 청소년은 예측하기 어려운 퇴소 이후의 생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독립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학습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는 청소년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이 소통과 협력은 퇴소 이후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질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아직 독립생활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퇴소 이후 생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실무자는 이에 대해 퇴소 이후 생활에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는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 결정하도록 돕는 과정이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단계이다.

이에 2단계, 사후관리 계획과정에서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인지한다.

○ 사후관리 계획 과정

- 과업1. 1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욕구들 중 청소년 스스로 대처 가능한 욕구와 대처가 어렵다고 제시한 욕구의 차이 분석
- 과업2. 청소년 스스로가 대처가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화하고, 이를 근거로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수행해야할 것인가를 판단
- 과업3.1. 사후관리 계획1.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 가능하다고 판단한 욕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이러한 역량이 퇴소 이후 지속 가능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 방식 계획
- 과업3.2. 사후관리 계획2. 청소년이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한 욕구에 대한 대응 역량

수준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의 역량 강화 전략과 실무자 또는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할 지원내용이나 방안을 탐색하고 계획

- 과업4. 탐색된 과업들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제공되거나 협력해야 할 모니터링, 서비스내용과 제공방식을 결정하여 합의
- 과업5. <과업4>에서 합의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사후관리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실무자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로서 본인의 의사, 선택, 결정에 기반하여 자신의 노력과 실무자 및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 자신의 성장 발달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단, 사후관리 계획 과정에서 실무자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대해 어떤 욕구가 최소 이후 생활에서 기초생활 수준 및 안전을 확보하는 우선순위를 갖는지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인지한 욕구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준비되어야 할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후관리 계획에 참조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지원 사업들

청소년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자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자칫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을 선택하여 계획하는 것이 본 단계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V-8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각 유형별로 제공하는 모든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목록을 종합한 내용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한 시설 유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지원 사업 항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사후관리 계획과정에서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대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주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8.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지원 사업

유형	내용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선생님의 정기적인 안부연락 •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적응되지 않는 상황 등 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상담이나 소통 요청할 수 있는 심리지원 • 청소년동반자 연계 • 심리적 위기 상담(전화, 대면, 방문 상담 등) 및 상담전문기관 연계 • 정신의학 치료비 지원 등
일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에서 소소한 좋은 일, 힘든 일 등 일상생활 소통·공유 • 결혼, 육아 등 의미 있는 생애과업, 이벤트지지, 지원 • 가사일, 집관리, 공과금 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 코칭, 생활지혜 나눔 • 일상생활모니터링 및 생활멘토링: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 시 의논, 조언 등 지지 • 이 외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정보제공 등
노동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정보제공, 관련 기관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정보제공, 연계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기술습득지원 • 그 외 필요한 취업지원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학업보조비 등 지원 • 독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관리, 금융관리 교육 - 소득, 지출관리, 통장관리, 공과금 관리 등 - 성교육 - 일상생활기술 교육 등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수당 등 관련 정책, 서비스 정보제공 • 가전제품, 장학금, 생필품 등 지원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주거지원 사업연계(대학생 전세주택, 영구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등) • 청년주거지원정책 및 서비스 정보제공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재활 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 중재 •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관계 어려움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지원
청소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한 고용 계약, 임금착취 등 고용관련 법률지원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 학대, 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 • 신용불량, 사기 등 금융문제에 대한 법률지원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등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요청내용에 적합한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 그 외 청소년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 자원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 등

퇴소 청소년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로부터의 사후관리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확대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탐색하고 신청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

자는 보호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모든 욕구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부담을 갖기보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청소년이 건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위 표 V-8과 같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단계’에서 확인할 목록으로는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망’이 있다. 즉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소년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사후관리자가 청소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망이자 비상연락망으로서 청소년의 안전을 사후관리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청소년 주변인의 기본 정보와 연락처를 실무자와 청소년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는 퇴소 후 생활에서 어떠한 인적 지지체계가 청소년에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청소년은 자신의 지지체계와 실무자를 연결함으로써 좀 더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실무자가 청소년으로부터 이 안전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무자와 공유되어야 할 청소년의 기본 정보, 즉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상호 서명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이 안전망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V-9를 참조한다.

표 V-9. 퇴소 이후의 청소년 개인 안전망 목록

구분	청소년 개인 안전망
청소년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이메일: SNS :
안전망 확인	※ 청소년의 비상연락망 등 유사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지체계 확인 <input type="checkbox"/> 안전망1. (관계)_____ (성명)_____ (연락처)_____ <input type="checkbox"/> 안전망2. (관계)_____ (성명)_____ (연락처)_____ <input type="checkbox"/> 안전망3. (관계)_____ (성명)_____ (연락처)_____

다. 3단계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은 청소년의 합의되고 동의된 <2단계.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에서 고려된 욕구의 우선순위와 그 계획을 반영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생활이 퇴소 전에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소 직후 청소년의 주거와 소득, 일자리 등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안정화되기까지 퇴소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무자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의 우선 순위도 바뀔 수 있다. 더욱이 폭력, 신용불량, 영끌, 사기, 부당한 고용계약, 노동/임금착취 등 청소년이 불리하거나 차별적 상황에 처한 경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우울,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도움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지원이 가능할 때, 청소년은 실무자와 사회를 신뢰하고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자원에 대한 목록과 연계를 준비한다.

- 부당고용, 임금착취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옹호기관
- 주거 계약사기 등에 대해 자문 및 보호 제공기관
- 신용불량, 대출사기 등에 대한 금융위기 관련 정보 및 법적 보호 제공기관
-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기관
- 우울, 자해, 자살 예방 및 트라우마 등 심리적 위기를 지원기관
- 각 지자체별 청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라. 4단계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의 시설 퇴소 이후 사후관리의 종결은 청소년의 문제나 상황이 개선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규정된 기간의 소멸, 청소년의 거부와 연락두절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후관리 종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사업안내에 명시된 사후관리 기간 6개월에 도달한 청소년의 사후관리 종결에 초점을 두고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관리 종결시점에 실무자가 청소년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정과 내용은 아래 그림 IV-6과 같다.

사후관리 종결은 행정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종결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지원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완전 종결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이라는 시한부로 제한적이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퇴소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과정에서 자립을 위한 매우 초기단계로서 퇴소 후의 생활에서 모든 시행착오와 혼란이 집중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초기 6개월은 행정 관점에서는 퇴소 후 사후관리이지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유예기간’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시기적으로 사후관리 6개월이 종결되는 시점에 청소년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관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두렵고 난감함의 무게가 무겁게 더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청소년참여자3>은 ‘비밀 언덕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실무자는 종결 시점에 청소년이 처한 생활 상황, 종결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사정하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 두려움, 고립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종결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의 동의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지속 또는 보류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이 안정화되기까지 실무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을 모색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단계	과업	내용
종결 준비	종결 준비	종결 전 최소 1개월 전 준비
	종결 이후 예측되는 청소년의 생활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1.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가? · 점검2. 학업, 교육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 점검3.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 주거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 점검4. 스스로 건강/질병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 점검5.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 · 점검6. 청소년의 신체, 심리, 사회적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가? · 점검7. 청소년은 권리침해, 법적문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 점검8. 앞으로 청소년은 자아감, 자존감이 위축됨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 점검9. 청소년은 스스로, 생활문제를 대처하거나 해결할 역량, 준비를 갖추었는가?
	종결 시점 자립 가능성/육구조사	<p><사후관리 종결 이후 예측되는 청소년 생활 점검> 단계의 각 점검요소에 대한 안정성 관련 육구 조사</p> <p>- 9개 육구범주 37개 자립육구항목 구성 (표 V-10 참조)</p>
종결 여부 평가 및 청소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종결 후 청소년 스스로 대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육구와 종결 이후에도 실무자 지원이 요구되는 육구 파악 · 종결시점에 청소년 육구 수준에 따라 종결 또는 종결 보류/사후관리 기간 지속 여부에 대한 청소년과의 합의, 결정 	

그림 V-6.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 과정

○ 종결준비

실무자는 사후관리 종결 1개월 전부터 청소년과 함께 종결준비를 시작한다.

이 종결시점은 청소년 입장에서 퇴소 후 생활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퇴소 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아가는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종결을 논해야 하는 부담은 실무자와 청소년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는 사후관리 종결시점을 청소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남은 1개월 동안 효과적인 사후관리 종결을 위해 실무자와 청소년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종결 준비의 실무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결준비는 사후관리 종결 최소 1개월 전에 청소년에게 고지한다.
- 실무자는 종결준비를 위해 청소년의 퇴소준비 시 작성한 욕구사정표, 모니터링 기록 등을 참조하여 실무자 관점에서 종결 이후 예측되는 문제와 청소년의 강점 등을 정리한다.

○ 종결 이후 예측되는 문제 점검

퇴소 이후 5개월여 시설 외에서 생활한 청소년은 퇴소 전에 사정한 욕구들의 의미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했을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한 지원의 유용성과 한계, 지역사회의 장벽 역시 어느 정도 경험했으므로 청소년이 제시하는 종결 이후 예측되는 문제는 훨씬 구체적일 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좌절을 더 크게 경험하거나 인지하고 있다면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오히려 해결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종결 이후 예측되는 문제를 점검함에 있어 청소년의 지난 5개월 동안의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해 공감을 공유하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여기서 통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아래 표 V-10과 같이 퇴소 준비단계에서 청소년이 제시했던 욕구를 근거로 하여 사후관리 과정을 함께 점검해 보고, 이 중 해결되거나 개선, 향상된 부분과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좌절, 실망하게 된 욕구들을 정리하고 그 각각의 이유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 V-10.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목록

욕구범주	퇴소 준비 시 사정한 욕구 내용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1. 노동 (취·창업)	원하는 일자리는?	<input type="checkbox"/> 노동(취업)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노동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한가?
2. 교육	원하는 교육은?	<input type="checkbox"/> 학업 지속의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학교생활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상급학교 진학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술교육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교육은 잘 유지하거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3. 경제	원하는 소득수준은? 현재 준비자금은? 현재의 금융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4. 주거	현재 가능한 주거형태는? 원하는 주거형태는?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원한다 (원하는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주거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5. 건강	현재 진단명은? 현재 정기적인 외래 여부? 현재 처방된 약물복용 여부? 퇴소 후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퇴소 후 염려되는 치료유지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신체 질병이 있다 5-1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 (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2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를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input type="checkbox"/> 신체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5-4 본인이 느끼는 주증상은 어떠한 것인가? 5-5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 (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나 역할이 제약받지 않는가? 건강 관련하여 위기대응이 가능한가?

욕구범주	퇴소 준비 시 사정한 욕구 내용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6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을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술, 약물 의존, 중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게임, 인터넷, 도박 등의 과몰입 및 과의존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간 갈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낼 가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내는 가까운 친구나 의미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청소년이 도움,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지지체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는가?
7. 안전	퇴소 후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 <input type="checkbox"/>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어떤 때 위기인가?)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	청소년은 앞으로도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안, 법적 문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는가? 본인이 권리침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가?	<input type="checkbox"/> 처리해야 할 법률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사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적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문제나 권리침해 발생시에 대한 대처 정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청소년은 권리침해,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욕구범주	퇴소 준비 시 사정한 욕구 내용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9 시설과의 관계 및 소통방식	사후관리 시 시설 선생님과 소통을 원하는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설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시설관계자와 꾸준한 면담 등을 원한다(원하는 소통방식 기재)	그 외> 청소년의 자아감, 자존감은 위축됨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청소년은 스스로, 생활문제를 대처하거나 해결할 역량, 준비를 갖추었는가? 이외의 제안
		<input type="checkbox"/> 타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타 시설의 이용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사후관리를 망설인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굳이 종결시점에 이러한 점검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난 5-6개월 동안 시도했던 여러 노력과 변화들을 결과적으로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하기보다 ‘자립의 한 과정’ 으로서 스스로 어떠한 노력이 유용했었고, 앞으로 어떠한 시도를 더 해봐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시도들이 부적절했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무자는 이 과정에서 판단적이거나 평가적인 태도와 용어보다는, 객관적이고 공감적인 태도와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사후관리 종결 이후 예측되는 청소년 생활점검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정리한 것이 표 V-10의 맨 오른쪽에 제시된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이다. 이 표는 점수를 내어서 (scoring)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통해 청소년과 실무자가 함께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성찰과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자.

따라서 실무자는 이 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일자리 유지가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예” 또는 “아니오” 의 소통을 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식의 소통으로 청소년과 심층적인 소통하기를 권장한다.

“현재 일자리는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인지?”

“이 일자리에서의 경험은 어떠한지?”

“이 일자리에서 보람은 어떠한 것이고 힘든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일자리에서 청소년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지?”

“이 일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청소년에게 지지적인지?”

“일자리에서의 대우(명확하고 공정한 고용계약, 임금 및 수당, 일 배치에서의 형평성, 합리적인 근로시간, 휴식이나 휴가사용 등 고용계약에 명시된 기본 내용들이 준수되는

지 등)는 신뢰할 만한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지?”

“일자리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직종으로 옮기고 싶은지?” 등등

청소년의 경험을 단답형으로 진단하는 소통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실무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결시점 자립 가능성 및 욕구조사

종결시점에서 자립가능성을 사정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효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실무자가 퇴소 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적응해야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청소년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소 청소년의 자립가능성에 대한 종결시점의 욕구조사 역시 퇴소준비 과정에서의 욕구와 전체적인 프레임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조사할 욕구 항목은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각 욕구범주의 안정성 수준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표 V-1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표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종결시점에 청소년의 욕구조사 시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참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사후관리 종결 실무에서 반드시 작성해야할 내용이 아님을 명시하고자 한다.

표 V-11. 사후관리 종결 시점 욕구조사 목록

욕구범주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종결시점 욕구 조사
1. 노동 (취·창업)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일에 대한 동기가 있으나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일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아직 동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2. 교육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교육은 잘 유지하거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업에 대한 동기가 있으나 아직 분야가 정해지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학업은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다른 학업, 교육을 원한다 (원하는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학업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아직 동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3. 경제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안정된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수입이 있으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는 부족하다 <input type="checkbox"/> 수입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주거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주거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5. 건강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나 역할이 제약받지 않는가? 건강 관련하여 위기대응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질병, 증상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다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 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나 사회적 역할, 직장이나 학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건강 위기시 도움을 받을 기관, 정보를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청소년이 도움,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지지체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족과의 갈등 시 본인이 해결, 조정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고립감, 소외감 등 심리적 위기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심리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7. 안전	청소년은 앞으로도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범죄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은 권리침해,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법적 문제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신고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 차별 등의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대응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9 그외	청소년의 자존감은 위축됨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청소년은 스스로, 생활문제를 대처하거나 해결할 역량, 준비를 갖추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종결 후에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종결 후에도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소통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 종결 여부 평가 및 청소년 동의

퇴소 준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리 경험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종결 시점에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절실하다. 앞서서도 인용한 <청소년 참여자3>의 ‘비빌 언덕’ 이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제거되는 불안함,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막막함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퇴소 후 5~6개월 동안 혼자의 삶을 겪어 본 퇴소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의 존재는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종결 여부 평가과정에서 실무자는 이러한 청소년의 분리 불안이나 막연한 염려를 공감하며 잘 다뤄주어야 한다.

- 사후관리 종결 시점에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 염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공감
-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 염려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무엇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종결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청소년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 사후관리 종결이 시설과 청소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설 의존적이었던 청소년의 지지 관계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미래 전망 제시
- 청소년과 시설의 관계는 이제 보호제공자와 보호대상자가 아닌 새로운 신뢰와 협력관계로서 재정립된다는 새로운 관계성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 등이다.

사후관리 종결 평가에 있어서 평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퇴소 준비 단계에서 사정된 욕구 욕구의 성취도, 해결 수준

두 번째는 사후관리 종결 이후 예측되는 청소년의 생활상태 점검에서의 ‘생활 안정성’ 확보 수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관리 종결 이후의 욕구에 대해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표 V-12 참조).

다시 말해서 퇴소 준비 과정에서 사정된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이렇게 충족된 욕구들이 사후관리 종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종결 이후 발생하는 욕구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사후관리는 충분

히 종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해결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수준이 청소년의 기초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자립의 기초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사후관리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보다 청소년 당사자가 사후관리 연장을 동의하는 여부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는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과정에 청소년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청소년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지역 사회를 통해 지원 가능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사후관리 종결 또는 지속관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청소년과 함께 합의하도록 한다.

표 V-12. 사후관리 종결 이후 청소년이 자기 욕구대처 역량 점검

욕구범주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종결시점 욕구 조사	청소년 역량대처		
			청소년이 대처가능한 방법	청소년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대처가 어려운 이유	원하는 도움방법
1. 노동 (취·창업)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일에 대한 동기가 있으나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일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아직 동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2. 교육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교육은 잘 유지하거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업에 대한 동기가 있으나 아직 분야가 정해지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학업은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다른 학업, 교육을 원한다 (원하는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학업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아직 동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3. 경제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안정된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수입이 있으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는 부족하다 <input type="checkbox"/> 수입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주거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주거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5. 건강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나 역할이 제약받지 않는가? 건강 관련하여 위기대응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질병, 증상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다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 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나 사회적 역할, 직장이나 학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건강 위기시 도움을 받을 기관, 정보를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욕구범주	사후관리 종결을 위한 점검	종결시점 욕구 조사	청소년 역량대처		
			청소년이 대처가능한 방법	청소년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대처가 어려운 이유	원하는 도움방법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청소년이 도움,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지지체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족과의 갈등 시 본인이 해결, 조정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고립감, 소외감 등 심리적 위기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심리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7. 안전	청소년은 앞으로도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범죄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은 권리침해,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법적 문제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신고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 차별 등의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대응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9 그외	청소년의 자존감은 위축됨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청소년은 스스로, 생활문제를 대처하거나 해결할 역량, 준비를 갖추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종결 후에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종결 후에도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소통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사후관리 기능

가. 관계적 안전망(심리·정서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가정, 학교, 노동 현장 등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청소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 예방을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이 심리적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정 외 사회로 복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했지만 언제든지 의논상대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 및 건강 지원

가정적 문제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과 소년사범 청소년은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중 가정의 폭력이나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퇴소 청소년은 정기적 약물 복용 여부와 치료를 확인하고,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식사는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 갈등관리 지원

퇴소 이후 사회생활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범위도 확장된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후배, 직장 상사 및 동료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제 상황의 해결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갈등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준다.

라. 경제 및 주거 지원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 경험과 자립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 경제관념이 희박한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수입에 따른 지출 상

황 등의 점검, 예·적금 및 투자 등의 상황에 따라 조언한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을 비롯하여 채무 및 대출, 금융 피해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한 청소년의 경우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계약 상황 등을 확인한다. 청년지원금과 근로장려금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안내해 준다.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취업처 안내 및 연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퇴소 이후 주거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은 전세임대 및 매입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마. 교육 지원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학업의 어려움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 시 학비 외 생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안내한다. 학업 외에도 컴퓨터, 운전면허 등의 각종 자격증 취득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바. 법적 지원

퇴소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도움을 준다.

법원 재판, 이혼문제, 가정 폭력, 채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사회 전문 자원을 연결해 준다.

표 V-13. 사후관리의 기능

구분	내용	주 확인 사항
관계적 안전망 (심리·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가정 및 사회 적응 - 청소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 예방을 위해 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 가족 등의 심리적 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 - 주요 관계망 확인
안전 및 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안전 - 질병 및 치료 확인 - 식사 - 노동 현장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주지 - 건강상태 - 정기적 식사 여부
갈등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서의 소통 -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의 어려움
경제 및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관념 - 채무, 금융 피해 - 노동 계약 - 주거 지원 - 취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상황(직장 및 아르바이트) - 저축 및 채무상황 - 거주지 유형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어려움 - 자격증 취득 -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및 진로 계획
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재판 - 가정 법률 - 성매매 피해 - 채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문제 여부

각 시설에서는 사후관리 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정보를 확보해 두도록 한다. 정부 정책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 표 V-14와 같다. 각 구분의 영역을 확인하고 지원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퇴소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14. 사후관리 자원 정보

구분	지원내용	관련사이트
관계적 안전망 (심리·정서 지원) /갈등관리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미디어 및 핸드폰 과의존, 청소년 종합상담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사업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3개월(10회기)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월 24만원(A) 또는 28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안전 및 건강 지원	복지로 - 의료비 지원 - 임신과 출산 - 상병수당 -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복지로 www.bokjiro.go.kr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지원단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www.ncmh.go.kr www.nmhc.or.kr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성범죄, 학대 및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신고 상담	안전Dream www.safe182.g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도박문제치유원 - 도박문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치유재활	도박문제치유원 www.kcgp.or.kr
	스마트심센터 -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상담 - 교육	스마트심센터 www.iapc.or.kr
경제 및 주거 지원	워크넷 -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채용 정보 등	워크넷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종합적서비스 - 저소득 구직자 대상 생계 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1350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청년 도약계좌 - 정부(금융위원회) 지원형 적금 상품	취급은행 모바일앱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전월세 지원센터

구분	지원내용	관련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 대학생 전세임대 - 청년 월세 - 영구임대주택 지원 - 행복주택 공급 	jeonse.lh.or.kr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주택: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약10~20만원) + 관리비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약10~20만원) + 관리비 - 건설임대주택: 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 + 관리비 	마이홈포털 www.myhome.go
	복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및 주거급여 -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에너지 바우처 - 보육 지원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www.kdeam.or.kr
	한국장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학비 및 근로장학 -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정보포털(입시정보 제공, 상담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univ.kcue.or.kr
	복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복지로 www.bokjiro.go.kr
	직업훈련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근로자 지원훈련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내일이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교육 	
법적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제도 -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상담센터, 마을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법률상담터 lawhomedoctor.moj.go.kr

5. 사후관리 서식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사후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인력, 예산, 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후관리 서식이 필요하긴 하나 자칫 서식 제시가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 중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서식만 제시하고자 한다.

표 V-15. 사후관리 서식

구분		내용
1	퇴소 욕구조사표	퇴소 전 청소년의 퇴소욕구 확인 - 필수 서식 아님
2	사후관리 계획서	종결보고서에 구성 가능
3	사후관리 동의서	퇴소 전 동의서 작성
4	사후관리지	사후관리 기록
5	사후관리 종결보고서	사후관리가 종료된 후 작성

퇴소 욕구조사표

욕구범주	내용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1. 노동 (취·창업)	원하는 일자리는?	<input type="checkbox"/> 노동(취업)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노동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이직을 원한다 (원하는 직업:) <input type="checkbox"/> 추가 욕구()
2. 교육	원하는 교육은?	<input type="checkbox"/> 학업 지속의 의지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학교생활을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상급학교 진학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술교육을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3. 경제	원하는 소득수준은? 현재 준비자금은? 현재의 금융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가 있다(규모 파악)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4. 주거	현재 가능한 주거형태는? 원하는 주거형태는?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원한다(원하는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5. 건강	현재 진단명은? 현재 정기적인 외래 여부는? 현재 처방된 약물복용여부는? 퇴소 후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퇴소 후 염려되는 치료유지문제는?	<input type="checkbox"/> 신체 질병이 있다 5-1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2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input type="checkbox"/> 신체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5-4 본인이나 느끼는 주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 환청,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5-5 <input type="checkbox"/>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진단명:) <input type="checkbox"/>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검사를 받고 있다 5-6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이 좋지 않지만 진단받은 적 없다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욕구범주	내용	
	청소년이 제시하는 욕구	청소년 욕구 수준(해당 사항에 √표)
		고 생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염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술, 약물 의존, 중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게임, 인터넷, 도박 등의 과몰입 및 과의존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건강 욕구()
6.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가족 간 갈등이 있다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낼 가족이 있다
	사회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연락하고 지내는 가까운 친구나 의미있는 사람이 있다
	사회관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누구인지?)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7. 안전	퇴소 후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학대나 폭력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떤 때, 누구로부터 위험이 염려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자해, 자살과 같은 심리적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어떤 때 위기인가?) <input type="checkbox"/> 그 외 욕구 ()
8. 법률 및 권익보장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안, 법적 문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는가?	<input type="checkbox"/> 처리해야 할 법률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사안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국적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법적문제나 권리침해 발생시에 대한 대처 정보가 있다
	본인이 권리침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가?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9. 시설과의 관계 및 소통방식	사후관리 시 시설 선생님들과 소통을 원하는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설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시설관계자와 꾸준한 면담 등을 원한다 (원하는 소통방식 기재)
		<input type="checkbox"/> 타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타 시설의 이용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퇴소 후 사후관리를 망설인다 <input type="checkbox"/> 그외 욕구()

사후관리 계획서

사례관리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례관리 기간	시작일		종결일		총기간	담당자	
사후관리 계획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집중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잠재 사후관리형					
	기간						
	방법						
	내용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사례 관리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례 관리 기간	시작일			종결일	총기간											
종결사유	연락 두절	가정 복귀	취업창업 경제적 지원	타시설 입소	거주지 확보	독립생활 욕구에의한 합의퇴소	군입대	입원	범률형 집행	입소 기간 만료	강제 퇴소	연령 도래	무단 퇴소	시설 부적응	기타	타지역 이주
	기타사유 : ※기타사유는 구체적 기술 필요															
서 비 스 제공현황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초 기 상 황								종 결 상 황							
사례 관리자 의견																
종결 결정일					담당 사례 관리자											
사후관리 계획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집중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잠재 사후관리형														
	기간															
	방법															
	내용															

※사례관리 종결보고서에 사후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후관리지

사례관리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사후관리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집중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잠재 사후관리형				
구분	일자/시간	사후관리방법	서비스 구분	사후관리 내용 및 종합의견	추후계획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SNS/문자 <input type="checkbox"/> 메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사후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목: ·내용:	

사후관리 종결보고서

사후관리 번호		대상자명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사후관리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본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집중 사후관리형 <input type="checkbox"/> 잠재 사후관리형				
사후관리 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총()차				
생활상태 점검사항	1.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가?				
	2.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교육은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3.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 주거를 확보했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4. 스스로 건강/질병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5. 청소년이 도움, 협력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				
	6. 청소년은 앞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7. 청소년은 권리침해, 법적문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8. 앞으로 청소년은 자아감, 자존감이 위축됨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9. 청소년은 스스로, 생활문제를 대처하거나 해결할 역량, 준비를 갖추었는가?				
	10. 기타				
종결유형	<input type="checkbox"/> 목표달성형 <input type="checkbox"/> 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거부형 <input type="checkbox"/> 만료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자 의견	(사후관리 종결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및 추후 계획 등 기술)				

VI.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시설 퇴소 후 재가출 예방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 방법과 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모델 개발과 현장에 적용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후관리 문헌 및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현장의 현황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8명과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사후관리 매뉴얼 활용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 과정 및 과정별 기능, 그리고 필수적 서식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의 과정은 총 4단계로 제안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사후관리요구사정, 2단계는 사후관리 계획 및 청소년 동의, 3단계는 사후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4단계는 사후관리 종결 준비 및 종결이다. 각 단계별로 과업과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후관리 유형은 기본 사후관리형, 집중 사후관리형, 잠재 사후관리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은 서비스 목표가 달성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안부 인사나 격려와 지지,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집중형은 서비스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시설 퇴소가 이루어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집중형은 기본형보다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매월 1

회 이상 모니터링하면서 사회 적응상태를 예의주시(銳意注視)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형은 사후관리 만료 이전에 서비스 목표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퇴소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한 대상으로, 수시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SNS나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후관리 종결 유형을 목표달성형, 기관의뢰형, 거부형, 만료형으로 구분하였다. 목표달성형은 사후관리 목표가 달성되어 서비스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관의뢰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개별 목표와 여건에 따라 타 기관에 의뢰되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종료된 경우이다. 거부형은 사후관리에 대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료형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넷째, 사후관리 중 사용할 수 있는 서식 5종을 개발하였다. 서식은 퇴소 욕구조사표,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 사후관리지, 사후관리 종결보고서이다.

2. 제언

본 연구내용을 근거로 정책적 제언과 향후 연구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기간 및 연령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무자 대상 FGI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사후관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청소년쉼터 강제퇴소시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보호·지원 등을 협의하고 청소년이 타기관의 보호·지원 등을 원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24세 이상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게는 서비스의 근거가 없다. 이에 반해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장애, 질병, 지적장애)이거나, 대학재학,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이 진행될 경우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본인의 의사나 여건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사후관리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 25세 보호종료되면 30세까지 사후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서비스 연령이 24세까지만,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 때는 본인의 의사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최소 30세까지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서비스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사후관리 전담인력 지원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한 실무자와 청소년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제안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점은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지원이었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인력구조로는 시설 입소청소년의 보호가 우선되다 보니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실무적으로 사후관리가 집중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정부에서 청소년쉼터에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지원한 사례를 근거로 사후관리 인력 배치를 강조하였다. 청소년 또한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기존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있지만, 사후관리 전담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 담당자의 관심과 끊임없는 지지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도 진술하였다. 사후관리에 대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사업안내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현장에 입소 중인 청소년 돌봄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사후관리가 부가적 업무로 인식되거나 부담스러운 업무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후관리의 과정과 서식들의 제공으로 인해, 현장은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된다면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위에서 제안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대상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면,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고 예산 배정도 가능하기에 더더욱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청소년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사후관리 지표 반영을 제안한다. 실무자 대상 FGI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후관리의 질적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사후관리는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지만 현재는 계량적인 성과, 즉 몇 명의 청소년에게 몇 건의 상담과 몇 건의 지원을 했는가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변화와 안정, 자원 활용 및 관계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와 중장기쉼터 평가지표(2022년 평가지표)에는 E2 평가지표인 입·퇴소 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지표 평가 요소로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실시 및 관련 기록 확인 한 가지만 사후관리 평가에 해당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평가지표(2023년 평가지표)의 경우 D1 대상자 관리 원칙 준수 평가지표에 사후관리 내용과 기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개의 평가요소가 있다. 회복지원시설은 시설 평가가 2024년에 실시되는 관계로 아직 평가지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후관리 강화와 현장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질적 사후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후관리의 질적 상황을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평가를 위한 전제는 현장에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재안한 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 예산 등의 수정을 전제로 한다.

넷째,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follow-up management) 용어를 사후지원(aftercare support)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피 돌봄’이라는 사전적 의미(위키백과, 2023)를 지닌다.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단어를 제외시키는 추세이다(헤럴드경제, 2019.01.08.뉴스). 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 청소년도 청소년복지시설이 주체가 되고, 퇴소 청소년이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퇴소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이 퇴소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더 친근한 용어라 생각한다. 국외 청소년쉼터 관련 시설에서도 aftercare 혹은 aftercare support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후관리보다는 사후지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에 동의하였으나,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사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사후관리 용어를 적용하였다.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져 ‘사후지원’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길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사후관리 전담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전담인력 인원과 배치 기준의 결정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개별 성격을 비롯하여 입소 전의 지지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수준, 정신건강 상태 또는 지적 장애 여부를 비롯해서 법적 문제에서부터 자해, 자살에 이르는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욕구와 문제의 범위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무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투입해야 하는 업무집중도나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에 적합한 사례량은 몇 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대부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청소년들일수록 사후관리에 대한 비협조, 연락두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협에의 노출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반면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인이 지원하는 청소년이 몇 명일 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고 효과적인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4개 유형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사후관리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이 서로 다른 4개 유형의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기초적인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에 이 기초모델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 기초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기초모델과 매뉴얼이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수정, 보완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기초모델의 완성도와 현장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본 모델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욕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관리 모델 개발 연구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중에는 지적장애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청소년, 13세 미만의 낮은 연령에 퇴소하는 청소년 등 기존의 보편적인 사후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의 자립은 물론 기초적인 안전조치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후관리 담당자와 꾸준히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합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 인력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청소년복지시설에 진입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의 케어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 역시 현장의 욕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그리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 특성에 따라, 실무자와 청소년 모두 낙오 없이 퇴소 후 사후관리에 있어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후속연구와 유사하게 실천 현장에서의 사후관리 구체화를 위해 대상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여부에 따라 사회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기본사후관리형,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집중사후관

리형, 서비스를 거부하는 중도탈락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실천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제나 목표에 초점을 둔 세분화된 유형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시설 퇴소로 자립이 시급한 해체가정의 자립준비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업복귀 청소년, 가정문제가 완화되어 부모의 돌봄이 기대되는 가정복귀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어 진로 준비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비행청소년,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계선지능 청소년,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 청소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특성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유형별 개입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실천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유형 구분의 준거 지표 연구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퇴소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현장의 데이터가 누적되면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실시될 경우, 보다 명확하게 유형이 도출되고 그 유형에 맞게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기본형과 집중형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 유형 지표 개발 연구도 실시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021.7.13., 1-21)
- 경찰청 (2022). 2022년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김지연, 윤철경(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지연, 정경은, 권해수 (202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엄명용, 김성천, 윤혜미 (2020).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위키백과, 2023. 10.22 네이버검색
-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백혜정, 김미향, 김성아, 정소연, 이우태, 이상적, 박광옥 (2022).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지영, 박화옥, 황효진, 양송이 (2011).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 모델개발연구: 자립지원 아동의 사례관리 필요성 기초연구. 서울: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적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전미숙, 김형모 (2017). 쉼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231-253.
- 전민경, 이지선 (202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조학래 (2022).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신정.
- 김영지, 최홍일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보고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Wells, R. A. (1994). Planned short-term treatment (2nd ed.). New York: Free Press.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3년 4월 30일 인출.

소년보호협회 <http://www.kipa.or.kr>에서 2023년 4월 30일 인출.

연합뉴스 22. 08. 24. “광주서 보육원 출신 청년 또 극단 선택” 2023년 4월 1일 인출.

헤럴드경제, 2019.01.08.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서 ‘관리’ 빠져…새 이름 ‘국립공원공단’ 2023년 8월 31일 인출.

<법령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2023년 5월 10일 인출.

부 록

1. 연구대상자 설명서

2. 연구대상자 동의서

<부록 1>

연구대상자 설명서(실무자용)

연구과제명 :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지원 모델 개발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청소년 퇴소 후 재가출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지원 모델과 현장에 적용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참여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8명

선정기준

본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자료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초 이론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경험의 충분성을 확보한 자로 함.

이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청소년복지시설(회복, 단기, 중장기시설 등) 종사경력 5년 이상으로 입소청소년의 퇴소 후 사후관리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인 자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인지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 동의하는 자

제외기준

- 본 연구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자
-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참여자의 경험자료를 왜곡하거나 진술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터뷰 시점 3년 이내에 우울, 알코올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입소청소년의 자해, 자살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 등의 심리상태에 있는 자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다른 실무자들과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면접 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후 녹음된 파일은 녹취되며 면접이 끝난 이후 연구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당일 면접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 인터뷰 참여(2023년 5월)를 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를 중도에 그만 둔 경우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동의서, 참여 녹음 파일과 녹취록 일체)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면접 도중 위험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연구 참여시 면접 참여에 대한 수당으로 10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면접에 참여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참여자 이름은 가명 혹은 익명 처리됩니다. 면접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가 완료된 이후 즉시 폐기하며, 녹취록은 연구 종료 후 3년을 보관한 후 영구 폐기됩니다. 면접 자료는 연구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서 암호화가 설정됩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000(공동연구자) 전화번호 000 - 000 - 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초당대학교 IRB위원회 전화번호 : 031-450-1031

연구대상자 설명서(청소년용)

연구과제명 :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 지원 모델 개발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후관리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청소년 퇴소 후 재가출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적용도 높은 사후관리 지원 모델과 현장에 적용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참여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 중 사후관리 경험자 5명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시설(회복, 단기, 중장기시설 등) 사후관리를 최근 1~2년 내 사후관리 경험이 3~6개월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인지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

제외기준

- 본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자
-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참여자의 경험자료를 왜곡하거나 진술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터뷰 시점 3년 이내에 우울, 알코올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면접 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후 녹음된 파일은 녹취되며 면접이 끝난 이후 연구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연락하여 당일 면접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 인터뷰 참여(2023년 7월)를 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를 중도에 그만 둔 경우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동의서, 참여 녹음 파일과 녹취록 일체)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면접 도중 위험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연구 참여시 면접 참여에 대한 수당으로 50,000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면접에 참여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참여자 이름은 가명 혹은 익명 처리됩니다. 면접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가 완료된 이후 즉시 폐기하며, 녹취록은 연구 종료 후 3년을 보관한 후 영구 폐기됩니다. 면접 자료는 연구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서 암호화가 설정됩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000(공동연구자) 전화번호 000 - 000 - 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초당대학교 IRB위원회 전화번호 : 031-450-1031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ollow-up Management Model for Out-of-Home Youth

Youths discharged from youth welfare facilities encounter various soci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after discharge, exacerbated by a fragile community support system and underutilized resources. The 2021 revision of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specifically Article 16(2), mand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counseling, protection, assistance with self-support, and follow-up management, to help out-of-home youth return to home and society.” This amendment to the law requires youth welfare facilities to provide at least six months of follow-up management for youth who leave the facili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ystematic support measures and processes for effective follow-up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highly applicable follow-up management model tailored for youth welfare facilities (youth shelters, Youth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s, and youth recovery support facilities). In addition, the goal is to create a manual that enhances the practicality of the model in the field. This initiative responds to the pressing need for research on follow-up management methods and processes within facilities, aiming to prevent youth from running away and to strengthen their independence upon post-facility discharge.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analyzed the literature on follow-up management and secondary data related to youth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relevant laws, and conducted case studies on aftercare in youth welfare facilitie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staff members of youth welfare facilities and four youths who had undergone follow-up management after leaving the facility to hear the current situation and voices from the field. Expert opinions were sought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to gather feedback on the developed

follow-up management manual.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follow-up management process for youth discharged from youth welfare facilities comprises four stages:

Stage 1 is the pre-release assessment of the need for follow-up management by the youth welfare facilities. Stage 2 is follow-up management planning and the youth consent, Stage 3 is follow-up management support and monitoring, and Stage 4 is the preparation and completion of the follow-up management. The tasks and key contents for practitioners are outlined for each stage.

Second, we categorized the types of follow-up management for youth welfare facilities. The types of follow-up management are categorized into Basic follow-up management, Intensive follow-up management, and Potential follow-up management each tailored to different situations and needs. The basic type monitors social adjustment by greeting, encouraging, supporting, and providing service information at least once a quarter for those whose service goals have been achieved, who can solve basic needs, and who do not have special difficulties in social adjustment. The intensive type is for those who have not achieved their service goals, but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facilit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rvice period, and can solve basic daily needs but are expected to have some difficulties in socializati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social adjustment status of the intensive type at least once a month at a closer interval than that of the basic type. The potential type is a subject who has left the hospital without permission, lost contact, or refused the service before the end of the follow-up manag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service goal is achieved. The service information necessary for socialization can be continuously provided through SNS or e-mail.

Third, the types of follow-up management completion were categorized into goal achievement, agency referral, refusal, and expiration, outlining diverse outcome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The goal achievement type refers to the case when the goal of follow-up management is achieved and the service is terminated according to the user's will even during the service contract period. The agency referral type is when the aftercare service is referred to another organization according to new individual goals and

conditions during the contract period, effectively ending the follow-up management. The refusal type is when the client consistently refuses to participate in follow-up management. The expiration type is when the contract period for the follow-up management service has expired.

Fourth, Five essential forms for follow-up management were developed, including discharge needs survey, follow-up management plan, follow-up management agreement, follow-up management sheet, and follow-up management completion report.

In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oposed based on these comprehensive findings.

** Keywords: out-of-home youth, youth welfare facility, follow-up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model, follow-up management manual*